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광주를 빛낸 역사 인물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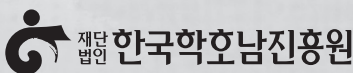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

2025

11. 27.(목) 13:00

광주광역시청 무등홀(2층)

주최·주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CONTENTS

개회 13:30~13:40	환영사 및 축사
기조강연 14:00~14:30	이정선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 07 조선대학교
주제발표 14:30~15:30	노성태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21 남도역사연구원
	안종철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 34 현대사회연구소
	신주백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 4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종합토론 15:40~16:40	좌 장 장우권(전남대학교)
	김남철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에 대한 토론편 59 전남교육연구소
	이향희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토론편 64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
	남기현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에 대한 토론편 66 한국방송대학교



기조강연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

이정선 조선대학교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

이정선(조선대학교)

1. 머리말

흔히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을 역사의 3요소라고들 한다. 인간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펼치는 생각과 행위가 역사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사나 지구사의 관점에서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곤 있지만, 여전히 인간을 주체로 삼아 역사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목적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설정된다. 역사는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교양인 동시에, 인간이 존재, 변화와 발전, 자아와 시간에 대한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 학문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현재나 미래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교훈성), 그리고 타민족과 구별되는 고유한 유산이나 역사상을 통해 민족의 동질감과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민족 공동체 의식 고취)이 강조되곤 한다. 그로 인해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가치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¹⁾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승할 것인가는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동반한다.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주제로 한 본 기조 강연문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의뢰로 작성되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3개년간의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을 통해 광주 관련 역사인물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선양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이 사업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광주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이를 전제로 삼아 본 강연문에서는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분석·소개하고 향후 진행할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강연자는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안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미리 밝히며 양해를 구한다.

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결과 분석

1)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결과보고서』 개요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은 2021~2023년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었다. 연도별로 1개씩 총 3개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파일 기준 1차년도 712쪽, 2차년도 1,150쪽, 3차년도 473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중 2차년도와 3차년도 결과보고서에는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인물정보 표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제출한 1차년도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먼저 연구용역의 기본 목적과 개요를 확인해 보자.

1) 양호환 외, 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31~35쪽.

단 3개월에 끝나야 했다.⁵⁾ 사전 작업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촉박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1차년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광주다운 역사인물의 선정 기준이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업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서에서는 광주(전남) 역사인물 선정 종합기준(안)으로 “시대별 분야별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광주(전남) 출신 인물로 역사적 사건 혹은 성별과 분야에 따른 분류”를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세부 종합기준을 제시했다.⁶⁾

- 광주(전남)에서 출생하여 활동하거나 연고가 뚜렷한 인물
- 광주(전남)에서 출생하여 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빛낸 인물
- 광주(전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
- 삼국시대부터 1945년 광복까지 조사기준일 현재(2021.12.31) 생존하지 아니한 인물 (조사기준일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1945년 이전 출생자로 조사기준일 생존하지 아니한 인물
-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인물
- 광주(전남) 지역사회 공동체 안녕과 발전을 위해 큰 공적을 남긴 인물
- 광주의 핵심 상징인 의(義)와 예(禮), 지(智)를 실천한 인물
- 향후 추진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는 인물
-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 원형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인물
- 국가·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업적이 있어 국가 브랜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또한 <표 1>과 같이 분야별 세부 기준(안)을 제시하고,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분류표를 기준으로 9개 분야 역사인물을 선정하고 다시 광주와 전남으로 나누어서 목록화하였다.⁷⁾ 수가 많은 남성 인물은 8개 세부 분야로 분류하고, 여성 인물은 1개 대분야로 포괄한 것이다.

표 1 광주(전남) 역사인물 선정 분야별 세부 기준(안)

대분야	세부 분야	선정 기준	세부 선정 기준
분야1 남성	의병	의병운동	- 각종 외침에서 공을 세운 인물 - 국가의 발전에 공이 큰 인물
	독립	독립운동 (3·1운동, 광주학생운동)	-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 - 광주(전남)에서 기존에 기념하고 있는 인물
	동학	동학운동	- 동학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 - 동학을 통한 민족사상을 고취시킨 인물
	정치활동 및 사상	정치인 사상가	- 광주(전남) 각종 정변을 맞아 공을 세운 인물 - 광주(전남)에서 기존에 기념하고 있는 인물(도로, 축제, 건축물 등)

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2.0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최종결과보고서』, 1~2쪽.
 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2.0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최종결과보고서』, 3쪽.
 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2.0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최종결과보고서』, 3~4쪽. 결과보고서의 「Ⅲ. 광주(전남) 역사인물 선정 목록」에도 세부 선정 기준이 거의 똑같이 기술되었는데, Ⅱ장에 수록된 이 표와 Ⅲ장의 기술이 다른 경우에는 보다 정제된 Ⅲ장의 기술에 입각해서 표를 수정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 발전에 공이 큰 인물 - 1945년 이전 출생자
	<u>문화·예술</u>	문학 미술 음악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이전 출생자 - 한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거나 일가를 이룬 인물 -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인물 - 후진 양성에 힘쓴 인물 - 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문화를 알린 인물 - 관련 연구 서적이거나 작품이 다수 있는 인물
	<u>종교</u> 및 <u>사회운동</u>	종교인 (선교사) 사회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선교사 - 광주(전남)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 선교사로 활동한 인물 - 빈민구제 사업에 적극 참여한 인물 - 의료 사업에 적극 참여한 인물
	<u>교육 및</u> <u>인재 창출</u>	교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한 인물 - 광주(전남) 인재 창출에 기여한 인물 - 1945년 이전 출생자
	<u>경제활동</u> 및 <u>일자리</u> <u>창출</u>	경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주요 경제인 - 광주(전남)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인물
<u>분야2</u> <u>여성</u>	의병, 독립, 문화·예술, 정치활동 및 사상, 종교 및 사회운동, 교육 및 인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 독립,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주요 활동을 한 여성 인물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광주·전남 역사인물의 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성인물의 경우, 본문에 해당하는 Ⅲ·Ⅳ장에서는 세부 기준(안)과 달리 분야별 분류를 시도했다. 다만 분류 수준은 남성의 8개 세부 분야보다 한 단계 하위 분류명을 사용하고 있다.⁸⁾ 이에 <표 2>에서는 여성인물 분류에 사용된 하위 분류명을 남성과 동일하게 8개 세부 분야로 정리했다.

표 2 1차년도 광주·전남 역사인물 선정 내역

지역	성별	세부 분야	명수	지역	성별	세부 분야	명수
광주	남성	의병	39	전남	남성	의병	301
		독립운동	36			독립운동	41
		동학	4			동학	31

8) 예컨대 독립운동 분야의 하위 분류명은 '광주학생운동, 3·1운동, 임시정부, 독립' 등이다.

		정치활동 및 사상	24			정치활동 및 사상	23
		문화·예술	31			문화·예술	74
		종교 및 사회운동	47			종교 및 사회운동	5
		교육분야	2			교육분야	5
		경제 및 일자리 창출	18			경제 및 일자리 창출	7
	여성	의병	1		여성	의병	1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25
		동학	-			동학	-
		정치활동 및 사상	3			정치활동 및 사상	-
		문화·예술	10			문화·예술	7
		종교 및 사회운동	5			종교 및 사회운동	1
		교육분야	3			교육분야	-
		경제 및 일자리 창출	2			경제 및 일자리 창출	-
	합계		256		합계		521

<표 2>를 보면 1차년도에는 광주 역사인물 256명, 전남 역사인물 521명으로 총 777명이 발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남 역사인물이 많은 것은 남성 의병 분야가 301명에 달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 외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분야별 차이를 보인다. 다만 여성인물의 경우 광주가 55명, 전남이 34명이어서 광주 역사인물이 오히려 더 많다. 수록된 전남 여성 역사인물은 거의 독립운동 서훈자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발굴 성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차년도에는 3,196명,⁹⁾ 3차년도에는 924명의 역사인물이 발굴되었다. 그런데 2차년도와 3차년도 결과보고서에서는 1차년도의 분야별·지역별 분류를 사용하지 않았다. 광주 인물인지 전남 인물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분야의 인물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그림 1>과 같이 인물 정보표만 제시된 것이다. 다만 비교란의 기술을 통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분야별 분류를 시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분야는 1차년도에 제시된 것과 다르다. 예컨대 전근대 역사인물을 대거 발굴한 2차년도에는 관료, 문신, 문관, 무신, 무관, 간신, 고려 왕족, 귀족, 도둑, 도적, 무당, 수군, 실학자, 문인, 문학, 종교, 유학, 유생, 유인, 불교, 승려 등등이 분야별 계층 분류 없이 비교란에 어지럽게 기술되어 있다. 근현대 역사인물 중심인 3차년도 결과보고서도 2차년도와 동일한 양식의 표를 사용하긴 했지만, 분류는 조금 더 체계화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예컨대 2차년도 결과보고서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농악, 대금, 상쇠, 아쟁 등으로 나열되어 있던 분야를 “예술 (거문고)”, “예술 (국악)”, “예술 (판소리)”, “예술 (씻김굿)” 등으로 ‘예술’ 및 그 하위 분야로 계층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또 ‘장인’ 분야를 도입하고 그 하위 분야로 각포장, 길쌈, 낙죽장, 대목장, 석공 등을 설정한 것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하지만 3차년도 결과보고서의 분야별 분류도 전체적으로 보면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긴 어렵다.

9)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2차년도에 해당하는 2022년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참여연구원 선발 모집 공고와 선발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공고에 따르면 2차년도 사업은 ‘새로운 인물 발굴’과 ‘인물 평전 저술’의 두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인물 발굴 분야에서는 한국학 분야 박사과정 이상의 참여연구원에게 3,000명 이상의 미발굴 인물을 발굴하도록 했다.

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결과보고서』의 평가 및 활용 방안

3개년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결과보고서』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그 기본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모든 시기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4,897명이나 발굴한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간략하나마 참고문헌도 제시했으므로 향후 사업의 기본 자료로 소중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기적한 것처럼 역사인물의 분류 기준이 일관적·체계적이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가장 일관적·체계적인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서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 엿보인다. 예컨대, 광주 역사인물과 전남 역사인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앞서 광주 역사인물이 256명, 전남 역사인물이 521명이라고 했는데, 광주 역사인물에는 광주 출신인 인물과 광주 출신이 아니어도 광주에서 활동한 인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광주를 제외한 전남 출신이면서 광주에서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만 전남 역사인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광주에서의 ‘활동’도 애매해서, 광주 역사인물로 포함될 만한 인물이 전남 역사인물에 들어가 있거나 동일 인물이 광주 역사인물과 전남 역사인물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전남 남성 의병으로 분류된 국동완(1867~1909)은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고, 1908년 2월 광산군 비아면 비아리에서 일본병 6명을 사살했다(69~70쪽).¹⁰⁾ 조사기준일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광주(전남) 역사인물 선정 종합기준(안)에 따르면 광주 역사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남 장성에서 출생한 호남의 대표적 항일의병장 기삼연(1859~?) 역시 전남 남성 의병으로 분류되었는데, 그는 1908년 체포 후 광주로 압송되어 광주 서천교 아래 백사장에서 처형당했다(71~72쪽). 그렇다면 광주와도 연고가 있고, ‘광주의 핵심 상징인 의(義)와 예(禮), 지(智)를 실천한 인물’로서 중요하다. 나주 출신으로 형 김준(김태원)과 함께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에서 활약하다 광산구 송정동에서 체포된 의병장 김울(1881~1908)은 광주 남성 의병에는 ‘김울’로(47~48쪽), 전남 남성 의병에는 ‘김률’로(75쪽) 중복 수록되었다. 반대로 광주·전남에서 활약하다 어등산에서 순국한 형 김준(김태원)은 광주에서도 농성광장에 동상을 건립하고 ‘죽봉대로’라는 도로명을 붙여 기념하고 있으나, 광주·전남 양쪽에서 모두 누락되었다.

분야별 분류에서도 중복 또는 부정확한 분류가 확인된다. 첫째 유형은 분야별 분류의 계층 분류가 없는 데서 생긴 중복이다. 예컨대 광주 출신으로 광주YMCA 회장, 호남신문사 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영욱(1891~1950)은 광주의 남성 독립(-독립, 199~200쪽), 종교 및 사회운동(-사회운동, 439~440쪽) 분야에 중복 수록되었다. 심지어 종교 및 사회운동 분야에서는 두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서, 최영욱은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 세 번 등장한다.¹¹⁾ 임진왜란 시기의 항일의병장 고경명(1533~1592)은 광주 남성 의병(40쪽), 문화·예술(-문학, 303~304쪽) 분야에 중복 수록되었다.¹²⁾ 1명의 역사인물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사회운동가일 수 있고, 또 의병장이면서 문집을 남긴 문학가일 수 있다. 인물 분야를 여러 계층으로 설계해서 하나의 역사인물은 대표적 분야 하나에만 배치해 중복을 없앤 다음, 다시 하위 분야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형은 분야의 정의가 모호한 데서 생긴 부정확한 분류이다. 예컨대 ‘의병’의 사전적 정의는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표준국어대사전), 또는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병사’

10) 이하 쪽수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제공받은 한글 파일 기준이다. 인쇄물과는 쪽수가 다르다.

11) 1차년도 결과보고서는 인물정보의 출처가 다른 경우, 항목을 달리 한 것 같다. 광주 남성 의병 양진 여도 ‘梁振汝(1860~1910)’와 ‘梁鎭汝(1859~1910)’의 두 항목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출처에 따른 기술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초 조사 결과물로서는 긍정적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만큼 중복 인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 조사 인물 수는 줄어든다.

12) 대부분의 역사인물은 문인이며 시서화를 남긴 예술인이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중복이 많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관군이 아니라 백성의 자발적 군사 조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런데 의병 분야에 무과에 급제해 벼슬하던 중 “임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충무공의 휘하에서 왜군과 싸워 전공을 쌓았으며, 당항포전투에서는 선봉에서 적을 섬멸”한 김견(72쪽) 등, ‘의병을 모집’한 관인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관직에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한 인물을 의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기본적으로는 2·3차년도 비고에 포함된 ‘무신’에 적합하다.

한편, 기초 자료로서는 의미 있지만 역사의식의 측면에서는 문제적인 인물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의병 분야에는 조선시대 국내 정변에서 활약한 ‘의병’이 포함되어 있다. ‘이인좌의 난’은 1728년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과 남인 과격파가 연합해 무력으로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이다. 그런데 광주 출신 민제장(1671~1729)은 “1728년(영조 4)에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을 당하여 공(公)은 안상군수(安城郡守)로서 아우 제만(濟萬)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난적(亂賊)을 토벌하였다.”(48쪽) 이는 ‘의병’이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광주(전남) 각종 정변을 맞아 공을 세운 인물’로서 정치활동 및 사상 분야의 ‘정치인’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 게다가 권력에서 배제된 이들의 저항을 진압한 행적을 ‘의병’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과 세도정치 하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저항해서 조선 후기 대표적 농민 봉기로 평가받는 ‘홍경래의 난(1811)’을 진압한 인물도 의병에 포함되어 있다. 광주 출신으로 “1812년(순조 12) 의병(義兵)을 일으켜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다가 적에 의해 살해”당한 최종연(광주 의병, 62쪽),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일으켜 난을 진압하는 데 공(功)”이 컸던 황면기(전남 의병, 171쪽) 등이다. 임금이나 왕실에 충성을 다하려는 전근대의 근왕주의적 역사의식에서 사용된 ‘의병’ 용어와 개념을 비판 없이 수용한 사례이다.

또 종교 및 사회운동 분야에서는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대부분 기독교계 인물이 발굴된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가 여럿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그중 종교인으로서 와끼다 아사고로오(脇田淺五郎)라는 일본인 천주교 신부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그는 천주교 광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인 임 맥폴린이 일제의 압력으로 사임하고 난 뒤 교구장에 임명”되었고,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428~429쪽) 와끼다가 2대 광주교구장에 임명된 것은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서양인 신부를 적성 국민으로서 투옥, 추방한 시기의 일이다.¹³⁾ 그를 대체해서 2년간 일본인 신부가 광주교구장을 맡은 것이다. 비기독교계 종교인을 포함해 종교적 다양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친일적 인사로서 ‘광주(전남) 지역사회 공동체 안녕과 발전’에 명확히 배치되며 ‘향후 추진사업’을 하기 부적절한 인물이 목록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

드물지만 사실 관계의 오류도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광주 여성인물에 포함된 소서노는 백제 건국신화에서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신화적 인물이다(-정치, 509쪽). 경기도 광주라면 모를까 광주광역시와는 무관하다.¹⁴⁾ 신화적 인물을 ‘역사인물’에 포함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 또한 제기된다. 일제강점기 남창상회를 운영한 광주의 대표 상인 심덕선(1805~1943)은 남성이지만, 이름에서 오해를 산 탓인지 역시 광주 여성인물(-경제, 530쪽)로 분류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현재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결과보고서』의 결과물을 선양사업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인물 분류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다시 설정하고, 사실 관계의 오류를 재확인하면서 인물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인물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4,897명(항목)을 모두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은

13) 「천주교 광주대교구」, 디지털광주문화대전.

14) 2015년 경기도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은 ‘땅의 전설 오! 광주’라는 주제로 광주하남위례성에서 백제를 건국하는 소서노와 온조의 이야기 등 12개의 광주 스토리를 담은 정기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흥겨운 농악따라 광주 역사여행」, 『경기신문』 2015년 11월 8일자.

광주광역시와의 관련성이 높은 인물만 추려 행적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분류 기준을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고 다시 계층 분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게 효율적일 듯하다. 현재의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목록에 계속 추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3.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

1) 법적·행정적 체계 마련: 과정의 민주성

향후 지속적으로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광주광역시는 이미 2022년 광주광역시조례 제5955호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문화유산자원과 담당)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¹⁵⁾ 이 조례는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광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할 책임은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있는데(제3조), 시장은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5. 그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를 구성해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한다(제5조). 이에 따르면,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의 후속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해서 선양사업 위원회를 비상설화했다.¹⁶⁾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고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것에서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바꾼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최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이 생길 시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 신설”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향후 과제를 추진하려면 다시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15)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2022.07.0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6)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2023.02.2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일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현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광산구, 서구, 남구가 각각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발굴 및 선양사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놓았다.¹⁷⁾ 북구와 동구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¹⁸⁾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각 자치구의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사업을 조율해 예산 및 행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의 상설화는 선양사업의 대상이 될 역사인물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으로서도 중요하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정치 공세 속에 사업을 축소·취소한 쓰린 경험을 안고 있다.¹⁹⁾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이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 이념 대립, 역사해석의 차이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탄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는 시구 행정 라인, 역사인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우선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 주도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선양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역사인물 목록을 정리하고, 학술대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이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대상과 범위: 공존 및 지속가능성

다음으로 선양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광주광역시 역사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2023년 개정 현행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는 발굴 및 선양사업의 대상이 되는 ‘역사인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역사적으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주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
-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역사인물의 대상과 범위는 대체로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1차년도 결과

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2019.07.16.);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서구조례)」(2025.05.27.);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남구조례)」(2025.09.2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8)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광주광역시 북구조례)」(2023.12.15.);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동구조례)」(2025.03.3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9) 「‘이념 논란’ 정율성 기념사업…광주광역시 결국 전면 백지화」, 『경향신문』 2024년 1월 17일자.

보고서에 제시된 광주(전남) 역사인물 선정 종합기준(안)과 그 취지를 공유한다. 그런데 선양 사업을 염두에 두면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했다는 기준은 포괄적일 뿐 아니라,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광주광역시 외 다른 지역의 역사인물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곳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기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역사인물을 최대화하려는 욕심은 자칫 여러 지자체에서 같은 인물을 경쟁적으로 선양하는 촌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후죽순 격으로 중복되는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초광역 단위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오늘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이에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대상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공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 역사인물은 원칙적으로 광주 출신(출생) 또는 본적(本籍)이 광주였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근현대 인물에서 본적이 광주라는 것은 광주에서 대대로 거주한 집안 출신이거나 결혼 또는 이주로 인해 근거지를 광주로 옮긴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등도 대개 본적을 기준으로 인물을 각 지역과 연결한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전국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중복사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주 지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누락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 또는 외국 출신 인물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출신지·본적지 이외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되, 각 지역 주체가 서로 소통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그 지역의 특색(연고)을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시인 이육사(1904~1944)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이육사문학관, 대구광역시에 이육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이육사문학관(문화공간 이육사)이 건립되어 있다. 경북 안동 도산면은 이육사의 본관인 진성 이씨 가문의 세거지이자 그의 출생지이고, 대구는 이육사와 가족이 1920년대 거주했던 곳, 서울 성북구는 이육사와 가족이 1939년부터 거주했던 곳이자 현재 이육사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 이육비 여사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들 기관과 지역은 각각 기념사업을 추진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어렵지만, 서울 성북구 이육사문학관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은 2020년 특별교류전시를 공동 개최했다.²¹⁾

비슷한 사례가 광주인물 중에도 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에서 활약해 현재 광주광역시 ‘금남로’ 도로명으로 기리고 있는 정충신(1576~1636) 장군이 대표적이다. 정충신은 고려 명장 정지의 9대손으로 광주 출신이어서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1차년도 결과보고서에서도 그를 정치활동 및 사상 분야의 광주 역사인물로 수록했다(273~275쪽). 그러나 그 후손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정착해서 현재 정충신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사당(진충사)과 묘소가 서산시에 있고, 서산시도 정충신을 ‘충절의 고장 서산시의 대표 인물’로 꼽으며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²²⁾ 광주광역시에서 정충신 선양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남 서산시 및 그곳에 있는 후손들과 소통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대상자를 사망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광산구 조례는 “광산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

20)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21) 「서울 성북구·안동 이육사문학관, 특별교류전시 ‘바다의 마음’ 개최」, 『내외통신』 2020년 10월 29일자.

22) 「정충신 장군 특별기획전, 충남역사박물관서 개막」, 『뉴시스』 2024년 10월 25일자.

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5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장사업 대상자로 정의했다(제2조). 어떤 사람이 선양사업의 대상이 될 만한 역사인물인지는 그의 전 생애를 아울러 평가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을 ‘역사인물’로서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은 생애 기간 중 평가가 뒤바뀌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선양사업에 광주광역시 역사인물에 대한 자료 발굴과 자료집 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물에 치중하는 현 사회에서 역사의 기초인 자료는 오히려 홀대받는 감이 있다. 하지만 지역 역사인물 연구를 활성화하고 선양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 자료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정리하고 인물을 연구하는 데 지역의 신진 연구자 또는 연구 모임을 지원한다면, 청년세대를 육성하고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3) ‘광주다운’의 재검토: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지향성

한편,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이 아니라 ‘광주다운 역사인물 선양사업’이라고 한다면, ‘광주다운’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이다. 단순히 광주광역시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명 인물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토대로 광주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곧 ‘광주다운’ 역사인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다운’에 대한 검토는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부족한 강연자로서는 여전히 ‘광주다운’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광주다운’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정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강연자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치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그 속에 어떻게 광주만의 고유한 지향성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두 가지 지점에 대한 고민이 광주광역시에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유공자 위주의 역사인물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주무대인 광주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서술과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가 국가적 시각에 의존해서, 지역사의 문제의식을 살리지 못한 채 중앙사의 축소판으로 귀결되는 감이 없지 않다. 국가적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지역(민)의 시각에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에 둔 역사인물 선정 기준을 둘 수 있을지를 ‘광주다운’에서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의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신안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항목도²³⁾ 참고가 될 법하다.

둘째, 역사인물 선양사업이 ‘영웅’, ‘위인’에 편향되지 않고, 민중사 또는 서발탄의 시각을 포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광역시 조례는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기여한 사람’을 ‘역사인물’로 정의하고, ‘선양사업’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내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제2조). 자칫 위인전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조례는 동시에 역사인물을 각 목적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라고 정의해서 희생자·피해자를 포괄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에 광복회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반대한 사건이 떠오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6년 서대문 독립공원 내 매점 부지에 100평의 땅을 확보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인권유린 범죄를 고발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광복회가 ‘독립공원 내 위안부 박물관 건립은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 운운하면

2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2.0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최종결과보고서』, 667쪽.

서 제동을 걸었다. 비판 여론에 직면한 광복회는 “어디까지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전쟁 희생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에 잡았으면 했던 것”이지, “위안부 할머니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²⁴⁾ 공헌자(기여자)와 희생자(피해자)를 구분하려는 강한 (무)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강연자가 2025년 광주광역시 일본군‘위안부’ 기림의날 기념행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평화·인권운동의 주체로 거듭났다.²⁵⁾ 또한 광주광역시(민주인권평화국)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8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면서 일본에 그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해 온 이금주(1920~2021)의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²⁶⁾ 이금주는 3차년도 광주다운 역사인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희생자(피해자)를 적극 포섭하는 데서 ‘광주다운’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광주다운’에 대한 질문은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 지향성으로 연결된다.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가 작성한 『제3기(2023~2027)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표방한다.²⁷⁾ 이에 관련된 역사인물을 적극 발굴하고 선양하면 어떨까. 강연자는 평소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광주 3·1운동의 상징인 윤형숙(1차년도, 광주 여성독립, 494~195쪽)을 장애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3·1운동 시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다 왼쪽 팔이 잘린 후, 장애 여성이면서 교사와 전도사로 활동한 윤형숙의 삶은 독립운동가로서만 설명될 수 없다. 또 역사인물 선양사업 대상이 이름과 기록을 남긴 사람에 한정되지 않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각종 운동 참여자 등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집단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양사업 대상을 사망자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미래의 광주다운 역사인물 후보로서 생존해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목록화와 자료 수집도 꾸준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대한 고민을 지속하려면 법적·행정적 체계를 갖추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다.

4. 맺음말(생략)

24) 「독립공원 내 위안부 박물관, 순국선열 명예훼손?」, 『경향신문』 2011년 9월 19일자.

25) 강연자료는 조선대학교 공공역사연구소 블로그(https://blog.naver.com/public_history_csu) 연구소 행사 후기 게시판의 「[행사] 2025 광주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후기)」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6) 「이금주 ‘일제강제동원’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광주일보』 2025년 8월 12일자.

27)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2022.12, 『제3기(2023~2027)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안)』, 9쪽.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

📖 << 발표문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노성태(남도연사연구원)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

안종철(현대사회연구소)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

신주백(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노 성 태(남도역사연구원)

I. 머리말

II. 양진여의 생애

1. 양진여의 가계
2. 양진여의 신분

III. 양진여의 의병 활동

1. 양진여 의진의 거병
2. 양진여 의진의 규모
3. 양진여 의진의 의병활동
4. 양진여의 피체

IV. 맺음말

1. 머리말

광주에 서암로¹⁾라는 도로명이 있다. 한말 의병장인 서암(瑞菴) 양진여(梁振汝)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도로명이다. 그러나 서암로를 아는 사람은 적다. 서암로를 알지 못하니 서암 양진여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의병장 양진여의 생애와 의병 활동을 살펴보려는 이유다.

전라도는 의로움의 고장, ‘의향’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한말 최대 의병 항쟁과 관련이 깊다. 1909년 전라도 의병들의 교전 횟수는 전국 총 1,738회 중 820회를 차지하고 있고, 교전 의병 수는 전국 총 38,593명 중 23,155명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교전 횟수의 47.2%가, 교전 의병수의 60.0%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고, 전라도인이었다²⁾. 이 무렵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산(三角山) 죽청봉(竹靑峰)에서 거병하여 활동한 대표적인 의병장이 서암 양진여다.

서암 양진여만 의병장이 되어 의병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양진여의 큰아들 상기(相基)는 독립 의진을 구성하여 일군과 싸우다 교수형에 처해졌으며³⁾, 양진여의 동생 동골(東骨)도 양진여 부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3년의 유배형을 선고받는다. 양진여와 아들 상기, 동생 동걸이 의병에 참여하자 관련 식구들도 큰 화를 입는다.

1) ‘서암로’는 서방사거리에서 전대 사거리를 거쳐 동운 고가도로까지의 도로명으로, 1992년 10월 지정되었다.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 1965

3) 양상기 의병장에 대한 교수형 판결은 「대구공소원 양상기 판결문」(1930. 5. 17)을 통해, 사형 집행은 1910년 8월 6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된다.

양진여의 둘째 아들 필수는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26세에 후사 없이 사망했으며, 군자금 확보를 위해 주막을 경영했던 부친 박순덕도 일제의 고문에 의해 평생 두 분이 새빨간 고막처럼 충혈된 채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다⁴⁾. 서암 양진여 가문은 한말 최대의 충절가문이 아닐 수 없다.

양진여 의병장 가문의 의병 활동은 대단했지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71년, 그의 판결문이 손자인 양일용씨에 의해 극적으로 발견되고 부터였다⁵⁾. 그리고 그 판결문은 1971년 6월 23일자「동아일보」에 크게 보도되어 세인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계속적인 후학의 무관심 때문에 양진여에 대한 논문 한 편 쓰여 지지 못했기 때문이다⁶⁾. 양진여에 대한 후학들의 무관심은 「창의록(倡義錄)」이나 「진중일기(陣中日記)」 혹은 「문집(文集)」 등이 남아 있지 않음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양진여에 대한 기록은 「판결문(判決文)」을 비롯, 「관보(官報)」나 『한국독립운동사』, 『전남 폭도사(全南暴徒史)』의 곳곳에 다수 남아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I. 양진여의 생애

1. 양진여의 가계

「제주양씨금성군파세보(濟州梁氏錦城君派世譜)」에 의하면 양진여는 고려 집현전 대 제학을 지낸 금성군 동재(棟材)의 둘째 아들 도원수 한서(漢瑞)의 16세손으로, 1860년 5월 31일 광주군 서양면 니동(光州郡 瑞陽面 泥洞)에서 남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제주, 호는 서암(瑞菴), 자는 진여(振汝)다. 부인 밀양박씨 순덕(順德)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양진여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소 다르다. 양진여의 대구공소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⁷⁾에는 전라남도 장성군 갑향면 행정리(全羅南道 長城郡 甲鄉面 杏亭里)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광산군 서창면 벽진리로⁸⁾, 심문조서(訊問調書)에는 광산군 서양면 니동리로 나온다⁹⁾.

그의 동생인 양동골의 판결문에 나오는 주소가 광주군 서양면 효죽동(瑞陽面 孝竹洞)인 것을 보거나, 그의 손자인 양일용의 증언에 의하면 양진여의 출생지는 광주군 서양면 니동¹⁰⁾이 맞아 보인다. 서창면 벽진리는 양진여의 부인인 박순덕 여사와 그의

4) 양진여의 둘째아들 필수(弼洙)와 부인 양순덕에 관한 내용은 양진여의 손자 양일용의 증언을 참조하였다.

5) 양진여의 「대구공소원 판결문」은 1971년 6월 22일 양일용(1928년생, 양진여의 손자)에 의해 부산교도소 문서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되었다.

6) 양진여와 관련된 글로는 이태룡, 『의병 찾아가는 길(II)』, 도서출판 다물, 1995에 쓴 「양진여·양상기 부자 -온 가족 한 몸 되어 목숨 바친 전남 의병장-」 과 양진여 의병장 공훈 선양 학술 강연회에서 발표된 홍영기, 「한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2000, 5 그리고 1977년 조동수 기자가 「전남일보」에 연재한 『의병열전-양진여·양상기 부자의병장-』이 참고 된다.

7) 「대구 공소원 양진여 판결문」(1910. 3. 5) 및 「고등법원 양진여 판결문」(1910. 4. 13) 참조

8) 『독립유공자공훈록』1, 국가보훈처, 1986, 726쪽.

9) 『한국독립운동사』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두 아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들어가 산 후손들의 주소이며, 박순덕 여사가 주막을 열었던 처가 동네인 장성군 갑향면 행정리는 잠시 머물렀던 은신처로 생각 된다¹¹⁾.

양진여의 3남 1녀 중 장남은 부친의 뒤를 이어 의병장이 된 상기(相基, 족보명은 秉奇)이며 둘째는 필수(弼洙, 족보명은 秉洙) 그리고 셋째는 공수(空洙, 족보명은 秉公)다. 둘째인 필수는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26세에 후사 없이 죽고, 셋째인 공수의 후손들에 의해 대를 잇고 있다. 그리고 양진여 의병장에 투신하여 3년 유배형을 받은 양동걸(자는 瑞賢)은 양진여의 이복동생이다.

2. 양진여의 신분

양진여가 어느 정도의 학문을 소지한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과거에 합격했거나 관직에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지닌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조병수 기자가 전남일보에 연재한 『의병열전』¹²⁾에 보면, 양진여는 13세 되는 해에 정이암(鄭李菴)¹³⁾에서 수학을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능주의 유학자로부터 학문을 배운 적도 있었다¹⁴⁾. 정이암에서 10년간 수학한 양진여는 담양군 대전면 삼인산 골짜기에 풍정암(風征菴)을 짓고 병서를 읽고 무예를 익혔다. 그가 풍정암을 짓고 무예를 익혔던 것은 과거시험을 포기했던 결과로 보인다. 그는 한때 과거시험을 준비한 것 같다¹⁵⁾.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정세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과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찾아오는 제자들을 길러냈다¹⁶⁾.

당시 양진여의 학문 수준이 상당했음은 다음 기록¹⁷⁾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양진여는 어린 시절 능주의 유학자에서 학문한 적이 있어 공자의 도(道)를 배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인(韓人)의 보통 이상의 학식이 있는 것 같다.”

위 기록에서 보듯 일제는 양진여의 학문 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양진여는 1908년 손수 격문을 띄어 의병 30명을 모으고 있다. 격문을 손수 띄워 의병을 모을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리고 당시 모여든 의병들에 의해 의병장으로 추대될 정도였다면, 양진여의 학문 수준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진여의 가문이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지닌 집안이었음은 양진여의 아들 양상기 의진에 구례의 양반 출신 유병기가 참모장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사실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진여 가문이 매우 한미하거나 비천한 신분이었다면 연제(淵齊) 송

10) 서양면 니동은 현재 북구 중흥동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11) 홍영기, 「한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이달의 독립운동가 양진여 의병장 공훈 선양 학술 강연회, 2000, 5월의 의병장 양진여 출생지 문제 참조.

12) 「양진여·양상기 부자의병전」은 197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의병 열전』의 이름을 전남일보에 연재되었다.

13) 정이암은 정철과 이기남의 강학 장소로 두 사람의 성을 따 이름을 ‘정이암’이라고 하였다. 장성을 유탕리 서골 불대산에 있었는데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

14) 『韓國獨立運動史』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15) 홍영기, 「한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2000, 5

16) 조동수, 『의병열전』 중 ‘風征菴에서 제자 길러’ 부분 참조

17) 『韓國獨立運動史』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병준(宋秉璿)의 문인이었던 유병기가 양상기의 휘하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⁸⁾.

양진여의 신분과 직업은 무엇이였을까? 심문조서에 신분은 평민, 직업은 주막업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 판결문에도 직업은 주막업(酒幕業)으로 나온다. 양진여가 거병 당시 주막업을 경영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양진여가 언제부터 주막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주막업은 생업의 일시 방편이었거나, 거병을 위한 군자금 모금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양진여의 신분은 평민이었지만, 단순한 평민은 아니었다. 학문에 뜻을 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풍정암을 통해 제자를 길러낸 농촌 지식인이었다. 양진여가 평민이었음은 양진여 의병 부대가 평민 의병부대임을 보여준다. 당시 남도의 의병장 중 평민 출신도 상당수 있었는데, 양진여도 그중 하나였다.

Ⅲ. 양진여의 의병 활동

1. 양진여 의진의 거병

양진여의 거병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양진여는 앞서 살핀 것처럼, 조국의 현실과 앞날을 고민하고 걱정하던 농촌 지식인이었다. 당시 그는 주막을 경영하면서 주막집에 오는 손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내객으로부터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대소의 관리에 일인(日人)을 임용하여 장차 한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하기도 했다.

그의 거병 동기는 그가 의병을 초모(招募)하는 광고를 보고 삼각산 죽청봉에 모인 30여 명에게 한 다음의 연설²⁰⁾ 속에 잘 묻어 있다.

我國이 日本의 保護를 受하게 되어 大小의 官吏에 日人을 任用하는 것은 자에 我國의 滅亡을 來케 하는 것으로 其 原因은 現政府의 大臣 等 現職에 甘하여 自國의 存亡을 介意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兵을 擧하여 速히 現 大臣을 仆하고 이어 日人의 大小官吏를 殺戮하고 또 各地에 侵入하고 있는 日本人을 退去시키고 獨立國으로 復舊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茲에 同志를 募集한 次第이다.

친일파와 일인의 축출을 통한 독립군으로의 복구가 그의 거병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진여는 1908년 7월 20일경 삼각산 죽청봉 거병 이후 초모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300명이 모이면 거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지의 의병장과 함께 연합하여 경성(京城)에 침입, 일을 도모할 예정이었다. 이는 다음의 심문자료²¹⁾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8) 홍영기, 「한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2000, 5

19) 『韓國獨立運動史』 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20) 『韓國獨立運動史』 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21) 『韓國獨立運動史』 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兵力 三百名에 達한 後는 此로써 目的 드디어 着手할 計劃이나 아니냐 물으니 部下의 充實을 期待려 各地에 擧兵中인 首魁에 款을 通하여 大擧 京城에 이르러 事를 擧할 豫定이라고 答하였다.

즉 양진여는 의병 세력을 확대한 다음 전국 각지의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 일시에 친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인을 축출하여 독립국으로 복구시키려는 계획을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진여의 판결문²²⁾에 나오는 ‘정사(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것을 기획하고…’가 그것이다. 이러한 양진여의 확고한 거병 동기와 목적은 재판장에서 내란죄를 적용받아 교수형으로 이어진다.

2. 양진여 의진의 규모

양진여가 언제 거병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피체 후에 작성된 다음의 심문조서²³⁾에서 살필 수 있다.

隆熙 二年 舊曆六月 十七八日頃 스스로 義兵을 招募하는 廣告 五枚를 出하고 此를 光州郡의 各處에 貼付하였다. 그리고 兼하여 指定한 舊曆六月 二十二日 夕方 光州郡 三角山 竹靑峰에 이르러 보니 모인者 三十名이 있다. …(중략) 參會者에 圖謀한 바 一同 此에 和하여 首魁를 梁에게 此를 바란다고 하여서 甘諾하고 今後 적어도 三百名에 達하기까지 招募하기로 하고 漸次 行動에 着手함과 共히 募集에 努力하는 協議를 擬하였다 한다.

위 사료에 의하면 양진여는 융희 2년(1908년) 6월 17, 8일경(음력) 의병을 초모하는 광고 5매를 작성해서 광주부 각처에 부치고, 이를 보고 6월 22일(음력) 광주군 삼각산 죽청봉에 모인자가 30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양진여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고, 이후 3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초모 작업과 행동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즉 양진여 의병은 시기적으로 전라도 의병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1908년 7월 20일(양력)경에 거병, 다음 해인 3월까지 활동하였다²⁴⁾. 그 후 병으로 쇠약해져 은신 중 1908년 부왜인의 밀고로 8월 26일 일제의 토벌대에 의해 피체된다²⁵⁾.

양진여는 삼각산 죽청봉 거병 후 모인 30명의 의병들에 의해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의병부대를 확대하기 위한 초모(招募)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30명으로 시작된 양진여 의병은 이내 100여 명으로 불어났다²⁶⁾. 100여 명으로 불어난 의병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양진여를 대장으로 한 의진이 구성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진여 의병부대가 어떻게 편성되었고, 부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²⁷⁾. 그러나 이미 언급한 이태룡의 글이나 「전

22) 「대구공소원 양진여 판결문」(1910. 3. 5)

23) 『韓國獨立運動史』 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24) 대구공소원에서 판결한 양진여 판결문을 보면 융희 2년(1908) 7월 20일 거병하여 융희 3년(1909) 3월경까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5) 『전남폭도사』;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전남일보 인서관, 1977, 133쪽

26) 『전남폭도사』;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전남일보 인서관, 1977, 133쪽이나 『한국 독립운동사』 15, 高秘收 第一〇一五號

27) 이태룡, 『의병 찾아가는 길Ⅱ』(도서출판 다물) 346쪽과 「의병열전」 393호에 연재된 전남일보 1977년 5월 20일자에 보면 창의대장 양진여, 도통장 안판구, 중군장 박성일, 좌익장 김처중, 우익장 김익지, 포대장 윤평원, 후군장 양동골로 나온다.

남일보」에 연재된 조동수 기자의 글을 보면 창의대장 양진여, 도통장 안판구, 중군장 박성일, 좌익장 김처중, 우익장 김익지, 포대장 윤평원, 후군장 양동골로 나온다.

양진여 의병부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수는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진여 연합의진에 김재선과 이원오라는 대한제국의 해산군인이 합류하기도 했다.

『한국독립운동사』의 사료²⁸⁾를 보면 9명을 거느린 진평대 출신의 김재선과 20명을 거느린 진평대 출신의 이원오가 1909년 2월 20일 광주군 우치면 수곡(水谷)에서 양진여 등과 회동, 양진여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때 양진여의 40여 의병과 함께 70여 의병이 연합의진을 이루기도 했다.

김재선은 진평대²⁹⁾ 출신의 병사이고 31세 가량이며 광주군 서양촌 출신으로, 진평대 총을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원오는 35세 가량으로 진평대의 총을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진평대는 1895년 설립된 지방군대인 진위대를 말하는 것 같다.

김재선은 진위대 출신이 확실하지만, 이원오는 진위대 출신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진위대 소유의 총을 휴대³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재선처럼 진위대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진여의 연합 의진에 양진여의 직속 부장은 아니지만 진위대 출신의 김재선과 이원오가 참여하여 양진여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은, 양진여 의진의 당시 위상을 잘 보여준다.

양진여 의진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양진여 거병 당시인 1908년 7월 20일경의 의병 규모는 이미 살핀 것처럼 30명이었지만, 목표는 300명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300명의 의병은 모이지 못하였다.

양진여 의병부대의 최대 규모는 1908년 11월경으로 100여 명³¹⁾이었다. 1908년 7월 거병 후 30명이던 의병이 11월에 100명이 되었음은, 양진여가 의병 확충에 진력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11월에 전개된 추월산 전투에서 양진여 의진은 15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는다. 그 후 양진여 의진은 쇠락해졌고, 양진여가 의진을 해산하고 잠복할 무렵에는 30여 명으로 줄어 들었다.

양진여 의진이 보유한 무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양진여 의진의 주무기는 어느 의진

그리고 도통장 안판구, 중군장 박성일과 후군장 양동골은 1977년 12월에 세워진 양진여 비문에도 나오고 있다. 이태룡의 글과 비문은 1977년 5월 20일자 조동수 기자의 「의병열전」을 참고하여 의심 없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사료에는 이들이 양진여의 부장임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안판구는 양진여의 도통장이 아닌 양상기의 도통장으로 나오고 있다(『韓國獨立運動史』15, 80쪽). 그리고 대구공소원 판결문에 보면 김익지, 김처중, 윤평원은 양진여에게 군자금을 징발당한 자들로 나오고 있다. 양진여 판결문에 등장한 이들이 의진을 구성한 부장들인데, 이들을 배려해서 군자금을 약탈당한 자로 진술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8) 『한국독립운동사』 13, 617-619쪽, 光秘收 第一五六號

29) 진평대(鎭平隊)는 1895년 설립된 지방 군대인 진위대(鎭衛隊)로 추정된다. 진위대는 전국에 4개 연대가 있었고, 전라도에는 전주에 2연대 소속의 3대대가 주둔했다. 진위대의 총인원은 2만여 명이었는데,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30) 『한국독립운동사』 13, 617-619쪽, 光秘收 第一五六號에 “金在先(元鎭平隊의 兵士)은 三十一歲 可量으로 携銃(元鎭平隊의 銃)하고 光州郡 瑞陽村의 出이라고 한다. 李元五(住處不明)는 三十五歲 可量으로 元鎭平隊의 銃을 携帶하고 있었다 한다”라고 나온다.

31) 『전남폭도사』;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전남일보인서관, 1977, 74쪽

처럼 화승총이었다. 거병지인 삼각산 죽청봉에 모인 30명 의병이 휴대한 화승총은 25정³²⁾이었다.

당시 양진여 의진의 중심 무기는 화승총이었지만, 화승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양진여 의진이 어떤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다음 사료³³⁾가 제격이다.

首魁 梁鎭汝 父子로 思料되는 約 八十名의 賊徒가 本月 六日 午後 九時三十分 昌平郡 內北面 維谷里 (駐在所 北方 約 一里)에 來하였다는 情報를 得하고… 賊은 黑色木綿地 洋服을 着하고 軍銃 五 火繩銃 四十을 携帶 刀劍 五·六振을 所持하였다 한다.

위 사료에서 보듯 80여 명의 의병이 소유한 무기로는 군총 5정, 화승총 40정, 도검 5·6자루가 있었고, 심지어는 대포도 보유하고 있었다. 양진여 의진이 대포를 몇문이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유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얼마만큼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이다. 양진여 의진이 대포를 소유했음은 1909년 11월 25일 추월산 전투에서 일군이 의병 15명을 죽이고 포(砲) 1정을 노획했다는 기록³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의병장 양진여는 탄환 6발이 장전된 권총³⁵⁾을 휴대하고 있었다.

양진여의 연합의진에는 이미 살핀 것처럼 김재선, 이원오 등 해산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진위대의 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즉 양진여 의진의 중심 화력은 일군이 보유한 무기에 비해 성능이 보다 떨어지는 화승총이었지만, 한말 지방 군대인 진위대의 총과 권총, 대포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무기는 여전히 일군에 비해 열세였고, 무기의 열세는 이후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고전한 이유 중 하나였다.

3. 양진여 의진의 의병 활동

양진여가 의병을 일으킨 목적은 친일 관료와 일인 관리를 물리치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복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의병 300명을 모아 각지의 의병장과 함께 연합하여 경성(京城)에 이르러 일을 도모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양진여 의진의 초기 활동은 300여 의병을 모집과 군자금 확보, 친일 관리를 비롯한 친일 세력의 제거가 중심이 되었다.

군량미 등 군자금의 확보는 의병 활동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양진여 의진의 경우 부인이 운영하는 주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역의 부호에게 군자금을 징수하였는데, 박성일, 김익지 등 다수인³⁶⁾이 대상이 되었다. 부호였던

32) 『韓國獨立運動史』15, 47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33) 『韓國獨立運動史』13, 654쪽, 光警秘收 第二〇〇號

34) 『전남쪽도사』; 이일용 역, 『祕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전남일보인서관, 1977, 74쪽

35) “首魁 梁鎭汝는 普通 韓服에 黑周衣를 着하고 短銃(彈丸 六發이 있다)에 仕込杖을 携帶하고 있었다”(『韓國獨立運動史』13, 617-619쪽, 光秘收 第一五六號)는 기록을 보면 양진여가 탄환 6발의 단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단총은 권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양상기도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36) 「대구공소원 양진여 판결문」(1930. 3. 5)에는 “군자금 등은 박성일, 김익지, 기타의 인민들에게 징발하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박성일과 김익지가 자발적으로 냈는지, 협박에 의해 강요되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태룡과 조동수 기자는 김익지를 우익장으로, 박성일을 중군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 공소원 양진여 판결문에는 양진여 의진이 이들 두 부장에게 군자금을 ‘징발’했다고 나온다. 실제 우익장·중군장이 되어 자발적으로 군량미를 냈는데, 이 부분을 숨겨주기 위해 양진여가 강제로 징발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에 실린 사료³⁷⁾를 보면 담양군 삼지촌에 거주했던 부호 김익지는 양진여 의진이 체포하여 금전을 강청(強請)하던 중 도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군자금을 냈는데, 보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눈에 띄는 초기 활동 중 하나는 일본인 우편체송인 에또오의 처단이었다. 이 부분은 『전남폭도사』에 다음처럼 서술³⁸⁾되어 있다.

11월 14일(1908년, 필자주) 오전 11시 우편체송인 후꾸오까현 사람(福岡縣人) 에또오(江藤喜次郎)가 담양군 오치면(현 광주시 북구 오치동 일대)에서 양진여(梁鎭汝)의 부하 5명에게 습격을 당해 살해되었다.

양진여가 거명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일인 관리의 처단이었다. 그리고 우편체송인 에또오의 처단은 그 실천이었다.

일제는 양진여 의진의 친일 관리 및 일본인의 처단 등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일제는 양진여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끝은 치열한 전투였다. 양진여 의진은 1908년 7월에 거병하여 다음 해 3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일군과 벌인 대표적인 전투는 광산군 신촌과 담양군 대치 및 추월산에서의 전투였다.

신촌 전투는 1908년 10월 26일 광주군 신촌(新村, 현 광산구 송정읍 신촌리)에서 일군 11명과 벌인 전투다. 양진여 의진을 격퇴하기 위해 나카고지 군조(中小路軍曹) 이하 7명과 순사대 순사 4명 등 11명의 일군이 신촌에서 양진여 의진 20여 명과 충돌했고, 양진여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에서 양진여 의진의 의병 5명이 전사하였고, 화승총 4정을 빼앗긴다³⁹⁾.

10월 26일 신촌 전투 이후, 일제는 조(趙)·마(馬) 양 경시가 이끄는 제2 특설 순사대를 편성, 양진여 의진만의 수색을 위해 1주일간 광주, 장성, 영광, 나주 지역을 수색⁴⁰⁾하였다.

일제의 수색이 강화되자 양진여 의진은 전해산 의진과 연합 의진을 편성하여 이에 맞섰다. 동년 11월 23일의 대치 전투⁴¹⁾가 그것이다. 양진여와 전해산의 연합 의진 규모는 300여 명이었다. 오후 5시 무렵 양진여·전해산의 연합 의진이 대치에 모이자, 급보를 받고 출동한 것은 광주수비대 우다 특무조장(宇田 特務曹長)이 이끈 16명의

37) 담양군 삼지촌에 살았던 김익지가 재산가였음은 “二月 二十日夜 潭陽郡 三支村居 財産家 金益枝를 逮捕 金錢을 強請中 其隙에 乘하여 逃走 歸宅하였다 한다.(『韓國獨立運動史』13, 617-619쪽, 光秘收 第一五六號)”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8) 『全南暴徒史』;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72쪽

39) 『全南暴徒史』;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69-70쪽

40) 『全南暴徒史』;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70-71쪽

41) 『全南暴徒史』;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74쪽

일군이였다. 출동한 광주수비대는 대치(大峙) 서쪽에서 공격을 가하였고, 연합 의진은 부락의 돌담과 대밭을 이용하여 응사하였다. 일군은 서쪽 고지를 점령하고 공격을 계속했는데, 싸움은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양진여·전해산 연합 의진이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치열했던 대치 전투는 끝이 난다. 일제는『전남폭도사』에 대치 전투를 기록하면서 전과(戰果) 대신 우에노(上野) 일등병의 전사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는 양진여·전해산 연합 의진이 우에노 일등병을 사살하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대치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연합 의진을 구성했던 전해산 의진은 장흥군 유치면으로 이동한 반면, 100여 명의 양진여 의진은 11월 25일 담양 추월산으로 이동하였다. 우다 수비대와 대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양진여 의진을 추격한 일군은 야마다(山田) 소위가 이끈 20여 명의 토벌대였다. 야마다 토벌대는 양진여의 100여 의병이 추월산(담양군 용면과 전북 경계 소재) 산정(山頂)에 모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기습 공격을 가하였다. 이것이 추월산 전투⁴²⁾다. 이틀간의 싸움에 지친 양진여 의진은 신속하게 응전했지만, 새로 교체된 야마다 토벌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양진여 의진의 의병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화승총 7정을 빼앗기는 대패를 당했다.

15명의 전사자를 낸 추월산 전투는 양진여 의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추월산 전투 이후 양진여 의진은 급속히 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치, 추월산 전투는 양진여 부대가 일군과 싸운 가장 치열한 전투였고, 전해산 부대와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일군과 맞선 전투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4. 양진여의 피체

양진여 의병 부대가 일군과 싸운 대표적인 전투는 이미 살핀 대로 1908년 10월의 신촌 전투와 11월의 대치, 추월산 전투였다. 이 시기 양진여 의진은 100여 명에 달하는 등 규모도 가장 컸다. 그러나 추월산 전투 이후 양진여 부대는 점차 쇠락해졌다. 대치 전투의 피해는 물론 추월산 전투의 피해가 너무도 컸고,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이었다.

추월산 전투 이후 양진여는 이미 살핀 것처럼 1909년 2월 광주군 유치면 수곡에서 아들 양상기 및 진위대 출신인 김재선·이원오 부대와 회동하여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총 대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치·추월산 전투 이후 양진여 의진의 독자적인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1909년 3월 4일자에 나오는 ‘양진여의 무리’가 아닌 ‘양진여 부자의 무리 약 50명⁴³⁾’이라는 표현이나, 동년 4월 25일자에 나오는 ‘양진여’ 대신 ‘양진여의 부하라고 지칭⁴⁴⁾’하는 표현으로 일제의 보고 내용이 바뀌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2) 『全南暴徒史』;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74쪽

43) 『韓國獨立運動史』13, 654쪽, 光警秘收 第二〇〇號

44) 『韓國獨立運動史』13, 617-619쪽, 光秘收 第一五六號

1908년 11월 추월산 전투에서의 대패 이후 양진여는 1909년 2월, 이미 살핀 것처럼 아들 양상기와 진위대 출신의 김재선과 이원오 부대와 연합 의진을 구성하여 총대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1909년 3월 이후 양진여의 독자적인 의진의 활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1909년 3월 이후 양진여 의진의 독자적인 활동이 끝났음을 보여준다.

양진여의 의병 활동 기간이 1909년 3월까지였음은 대구 공소원의 양진여 판결문⁴⁵⁾인 “피고(양진여)는 한국 융희 2년(1908) 7월 20일경 정사(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것을 기획하고 전라남도 광주군내에 격문을 보내 동지 약 30명을 모집하여 수괴가 되어 총 약 25정을 휴대, 동일부터 융희 3년(1909) 3월경까지 동일(同一)의 의사를 계속하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양진여는 1909년 어느 시점⁴⁶⁾에 지병과 부상으로 의진에서 물러나 잠복한다. 그가 부하 박모(朴某)에게 의병을 맡기고 인퇴(引退, 물러남)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고령과 1908년 10월부터 발생한 왼손 엄지손가락에 생긴 종기(腫氣)⁴⁷⁾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요인은 15명 의병이 전사한 1908년 11월 추월산 전투의 패배였다. 추월산에서의 패배 이후 양진여 의진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그가 박모에게 의진을 넘길 때에는 30여 의병만이 남아 있었다.

양진여는 체포되기 수일 전 장성군 갑향면 향정리(현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에 들어와 은거했다. 그의 은거지인 갑향면 향정리는 한때 그의 부인이 주막을 열었던 곳이기도 했다. 그는 향정리에 들어와 이성일의 가옥을 빌려 은거하면서 이름도 박여진(朴汝鎭)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부왜인의 밀고가 있었다. 부왜인의 밀고를 접한 일제는 1909년 8월 25일 가지무라 중위가 이끈 37명의 토벌대와 덕전(德田)이 이끈 5명의 경찰 정찰대 등 40명이 넘는 일군을 출동시킨다.

다음은 25일 광주를 출발, 26일 새벽 5시경 의병장 양진여가 체포⁴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다.

賊魁 梁鎭汝 梁相基 父子 長城郡 甲鄕面 香亭에 潛伏하고 있는 情報에 依하여 命을 受하고 本職 德田 巡查 巡查 劉永達 巡查 白贊德 翻譯官補 文明魯의 五名이 一隊가 되어 當守備隊로부터 梶村中尉 以下 三七名(其中 六名 韓裝하고 있었다)과 連合하여 昨二十五日 午後九時半 目的地 香亭(光州로부터 北 約 四里半이다)으로 向하였다. 翌 二十六日 午前四時半 同地에 到着하여 直時 守備兵은 同村을 包圍하고 警察隊 及 變裝兵士 六名은 搜索隊가 되어 直時 同村間에 侵入하여 搜索에 從事하였다. … 然이나 巡查 白贊德 翻譯官補 文明魯는 賊魁 梁鎭汝를 알므로 彼는 梁鎭汝라고 소리치자, 彼는 狼狽하여 後方 竹藪 內에 逃走하려는 것을 德田巡查는 第一 彼를 追跡하여 藪口에서 取押한 바 彼는 抗拒하였다. 本職及 梶村中尉 其他 一同 走寄하여 此를 逮捕하였다. 때는 同日 午前 五時이다. 彼는 數日前으로부터 同村에 到하여 李成一이란 者의 家屋을 借受하고 朴汝鎭이라고 僞名하고 潛伏하고 있었음을 發見하였다. 그리고 梁相基는 드디어 보이지 않았다. 風評에 의하면 江原道 地方에 갔다고 한다. 또는 寶城郡에 갔다고 하여 所在 判明되지 않는다. 同村에 潛伏한 模樣이 아니므로 連合隊는 同地를 引揚 本日 午後 五時半 歸署하였다.

45) 「대구공소원 양진여 판결문」(1910. 3. 5)

46) 양진여가 박모에게 의진을 인계하고 잠복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909년 3~4월 무렵으로 추정된다.

47) 『韓國獨立運動史』15, 478-480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의 四

48) 『韓國獨立運動史』15, 327-32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

양진여 의병장 체포를 위해 광주경찰서에 근무하는 덕전(德田) 순사가 이끄는 5명과 가지무라 중위의 토벌대 37명이 동원되고 있다. 양진여 의병장의 거처를 확인한 후 42명이나 출동했음은, 당시 양진여 의병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40명이 넘는 양진여 의병장 체포대가 광주를 출발한 것은 1909년 8월 25일 오후 9시 30분이었고, 은거지인 향정리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인 8월 26일 오전 4시 30분이었다. 양진여 의병장이 곤히 잠들고 있던 새벽에 체포 시간을 맞춘 것이다. 가지무라가 이끈 토벌대는 마을을 포위하였고, 양진의 얼굴을 잘 알고 있던 경찰 정찰대와 변장한 토벌대원은 수색대가 되어 마을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양진여는 수색 30분 만인 5시, 토벌대에 의해 체포된다. 그리고 양진여를 포박하여 광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30분이었다.

양진여는 체포 후 광주경찰서에서 부인 박순덕을 불러 “나는 거병 당시부터 죽음을 결심했고, 국가를 위해 진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금일 죽어도 결코 유감이 없다. 내가 죽은 후 장자 상기는 또 의병으로 전투중에 있으므로 차자(필수)로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라”는 유언⁴⁹⁾을 남긴다.

체포 당시 양진여의 심정은 광주경찰서에 한 “자기 한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옥을 다해 형(刑)을 받고 죽음은 유감이다⁵⁰⁾”는 말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의병장 양진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만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진여가 이루고자 했던 뜻은 의병 세력을 확대한 다음 전국 각지의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 일시에 친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인을 축출하여 독립국으로 복구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으니, 유감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양진여는 1909년 8월 26일 체포되어 9월 1일 광주지방법판소로 송치⁵¹⁾된 후 1909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는다⁵²⁾. 대구공소원에 항소했지만, 1910년 3월 5일 대구공소원 형사부는 다시 양진여에게 내란·강도죄를 적용 교수형을 판결하였다⁵³⁾.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⁵⁴⁾하였지만 기각되었다. 그리고 아들 양상기⁵⁵⁾보다 두 달 앞선 1910년 5월 30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⁵⁶⁾.

49) 『韓國獨立運動史』15, 327-328쪽, 光警秘收 第七二三號

50) 『全南暴徒史』; 이일용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134쪽

51) 『韓國獨立運動史』15, 478-480, 高秘收 第四九二一號의 一

52) 「대구공소원 형사부 양진여 판결문」, (1910. 3. 5)

53) 「대구공소원 형사부 양진여 판결문」, (1910. 3. 5)

54) 「고등법원 양진여 판결문」, (1910. 4. 13)

55) 양상기의 교수형이 집행된 것은 1910년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였다. 양상기의 교수형 집행은 융희 4년(1910) 8월 6일자 관보 제4750호에 실려 있다.

56) 양진여의 교수형 집행은 융희4년(1910) 6월 7일자 관보 제4698호에 실려 있다.

IV. 맺음말

한말 남도는 최대 의병 항쟁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출신인 서암 양진여 의병장이 있었다. 양진여의 의병 활동을 정리하면서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양진여는 1860년 광주군 서양면 니동(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한 농촌 지식인이었지만, 어수선한 시국 때문에 과거를 단념한 채 주막업을 하면서 거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양진여는 1908년 7월 20일경 삼각산 죽청봉에서 30명으로 거병하고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거병의 목적은 일인 관리를 살육하고 각지에 침입하고 있는 일인을 물리쳐 독립국을 복구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진여는 의병의 확충을 위해 진력했고, 그 결과 1908년 11월에는 100여 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양진여 의진의 주무기는 화승총이었지만 양총과 대포, 권총도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광주와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었지만, 연합 의진 결성시에는 해산 군인이 참여하기도 했다. 양진여 의병의 주 활동 무대는 광주를 근거지로 한 인근의 장성, 담양, 창평 등이었다.

거병 초기 일본인 우편체송인을 살해하는 등 일본인을 응징하기도 했지만, 일본군 토벌대의 주 토벌 대상이 되면서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1908년 10월의 신촌 전투와 11월의 대치, 추월산 전투가 그것이다.

이 전투를 통해 일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양진여 의진의 피해도 막심했다. 특히 추월산 전투에서는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15명의 의병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기도 했다. 15명의 전사자를 낸 추월산 전투 이후 양진여 의진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양진여는 1909년 2월 연합 의진을 구성하여 총 대장에 추대되었지만, 지병과 부상으로 활발한 활동은 전개할 수 없었다. 3월 이후 양진여 의진은 사실상 와해된 채 부대원의 일부는 아들 양상기 의진에, 일부는 부하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양진여는 일군의 추격을 피해 장성군 갑향면 향정리(현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에 잠복했지만, 부왜인의 밀고로 1909년 8월 26일 체포되었다. 1909년 12월 13일 광주 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공소원에 항소했지만, 1910년 3월 5일 대구 공소원은 다시 양진여에게 내란·강도죄를 적용하여 교수형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그리고 1910년 5월 30일, 아들 양상기 의병장보다 두 달 앞서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의병 세력을 확대한 다음 전국 각지의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 일시에 친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인을 축출하여 독립국으로 복구시키려는 계획은 실패했다. 그러나 서암 양진여는 아들 상기와 함께 거병한 부자 의병장이었으며 전해산 등과 연합하여 일군과 싸웠고, 각지의 의병과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하여 친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립국을 복구하려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주축이 된 평민 의병부대였고, 연합 의진을 편성 할 때에는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광주 서구 매월동 백마산 기슭에 있는 양진여 무덤 앞에는 “내 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욕을 당해 형을 받고 죽음은 유감(遺憾)이다”라고 새겨진 비가 서 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수형으로 순절한 양진여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건국 훈장 국민장을 수여했다⁵⁷⁾. 광주광역시는 2009년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 북단부터 풍향동 서방사거리를 잇는 3.2km 도로를 양진여의 호를 딴 ‘서암로’로 지정하였다.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3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5권
- 조동수, 『의병열전』, 「양진여 양상기 부자의병장」, 전남일보, 1977. 5
- 『전남폭도사』 ; 이일용 역, 『비록, 한말전남의병전투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 이태룡, 『의병 찾아가는 길(2)』, 도서출판 다물, 1995
- 홍영기, 「한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활동」, 2000. 5
- 노성태, 『양진여·양상기 부자의병장 실기』,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2009
- 「대구공소원 양동골 판결문」(1908. 12. 25)
- 「대구공소원 양상기 판결문」(1910. 5. 17)
- 「대구공소원 양진여 판결문」(1910. 3. 5)
- 양진여 의병장 사형 집행 고시 관보 (1910. 6. 7)
- 양상기 의병장 사형 집행 고시 관보 (1910. 8. 6)
- 「61년 만에 햇빛 본 의병대장 판결문」, 동아일보(1971. 6. 23)
- 「의병장 서암 양진여공 행장」, 1980
- 「의병장 양공진여순절비문」, 1983
- 부자 의병장 후손(양일용)과의 대담, 2006

57) 국가보훈부는 광주, 장성, 담양 지역에서 평민 의병장으로 활동한 양진여를 2000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그 업적을 기렸다.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

안종철(정치학박사,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1. 머리말

1969년 2월 7일 작고한 최종섭의 장례는 2월 11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장(社會葬)으로 거행되었다. 수많은 광주시민이 운집하였으며, 여고 합창단이 장송곡을 부르고 군악대와 의장대가 참여하여 장례의 격을 높였다. 장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오필선 변호사였으며, 그는 치사(致辭)에서 "최종섭 선생은 조국 광복과 항일투쟁에 평생을 바치시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중략) 선생은 3·1운동을 비롯한 일제에 항거하는 모든 의거에 직접 참여하여 선두에 섰으며, 상해임시정부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시면서 항일투쟁에 몸 바쳐 오셨다. 해방 후에는 독립촉성국민회 전남지부장, 입법의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전남지부장으로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쓰셨다."라고 회고했다. 김보현 전남지사와 기세훈 광주고등법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낭독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세운 비문에도 3·1운동 전후 왜인의 무단통치에 굴하지 않고 청년층을 단결시키기 위해 광주청년회를 조직하고, 교육 개선·소작농 운동·신간회 운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69년 당시만 해도 1919년 3·1운동 참여자와 임시정부 활동 인사들이 다수 생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위원장이나 전남도지사, 광주고등법원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히 말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이 글은 출발하였다. 고인과 발언자 모두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에, 과장이나 허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최종섭의 탄생과 민족계몽운동

최종섭은 광주면 서남리(현 남동 부근)에서 농사를 짓던 탐진 최씨 최병선과 남평 문씨 사이에서 1882년에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한학을 꾸준히 익혔다. 그러나 당시 정세는 한가롭게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894년 동학농민항쟁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일 양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여 전쟁을 벌였으며,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했다.

그는 일제의 침탈로 나라를 빼앗기고 의병 활동이 전개되던 한말의 격동기에 청년 시절을 보냈다. 처음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은둔으로 달랬으나, 전국에서 촉발된 항일 독립운동을 목격하고 여러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다.

1) 국채보상운동에 참여

일제의 침탈은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 설치와 함께 심화되었다. 일제는 정치·경제 지배에 필요한 경비를 '차관'으로 충원하며 이를 근대화 명목으로 포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식민 통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07년 그 차관은 1,3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일본은 경제적 침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광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농공 상은행을 설치했다.

1907년 1월 경상북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광주는 1907년 5월 대동의무소를 설치하며 전라도 지역 중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는 대구 대동광문회의 지회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광주의 국채보상운동 사무소인 대동의무소는 총장로 3가 옛 광주은행 본점 건너편 건물에 있었고, 의연금 모금 활동에 직접 나섰다.

전라도의 의연 단위는 가족·문중·상민·교사와 학생·향교·농민 등 다양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역 인사들의 자발적 활동이 두드러졌다. 남성들은 금연·금주운동을, 여성들은 줌도리·반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1만여 원의 의연금을 모았다. 관료와 유지들은 기성회를 조직해 취지서를 작성·발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최성기와 최종섭은 '전남국채보상기성회' 간판을 걸고 본격 활동을 펼쳤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의연자 명단을 실는 등 전개 상황을 적극 보도했다. 1907년 11월 2일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대한매일신보』 광고에는 광주 군민의 이름과 의연금 내역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여 주요 인물을 구속하고 모금소를 공격하는 등 방해했고, 광주 지역의 운동도 결국 무산되었다.¹⁾

2) 국민 자강운동에 투신

1907년 당시 광주에는 개화의 물결이 일었고, 그는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운동에 집중했다. 잠농사(蠶農事) 운동을 통해 국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영농법과 잠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 근대화를 도모했다.

1908년 하반기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대한협회는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박탈된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의 운동을 계승해, 교육 보급·산업 개발·생명자산 보호·행정제도

1) 박선홍, 『광주 1백년』, 94쪽

개선·관민 폐습 교정·근면저축 실행·권리·의무·책임·복종 사상 고취 등 7개 강령으로 자강운동을 추진했다. 1908년 12월 광주군 효우동면의 대형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 52채의 가옥이 소실되자 임시총회를 열어 구휼 방안을 논의하고, 회원과 관청에 구휼금 모금을 건의하는 등 재난 구호에 앞장섰다. 1909년 대한독립협회(대한협회) 광주지회가 설립되면서 최종섭은 실업부장과 사업부장을 맡은 것으로 기록된다.²⁾

1910년 그는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자강운동을 전개하고자 대한협회 광주지회 회관에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했다. 수업은 대한협회 광주지회 임원이 담당해 보통학교 과정을 가르쳤고 학생 수는 130명에 달했다. 이때 사립측량학교에서도 야학을 개설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3) 광주청년회 조직과 활동

1919년 전국적으로 3·1운동의 열기가 확산되던 가운데, 1920년 6월 청년의 지·덕·체 함양과 친교, 잘못된 풍속 개량을 목적으로 광주청년회가 조직되었다. 4) 광주청년회는 광주 지역 3·1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잡지종람소' 그룹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회장 최종섭, 부회장 정인준, 서기 전순협, 회계 최선진 등이 주도했으며, 이들은 광주상업조합 발기인이자 지역 실업가·금융업 종사자가 많았다.⁴⁾

광주청년회는 교육사업·체력 향상·풍속 개량을 위해 강연과 야학 등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여성과 청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초기 활동은 교육·사교·체육 등 6개 부서를 두고 친선 도모, 교육·토론회·강연회, 체력 향상과 문화활동, 물산장려운동 등으로 요약된다.

당시 가난으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준하는 강습소를 설치했으며, 1920년 9월 여자 야학 개학식을 거행하여 400여 명의 여학생에게 조선문·한문·산술·가정학 등을 가르쳤다. 60세가 넘는 노년층도 교육을 원했으나 장소가 협소해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청년회는 교육뿐 아니라 콜레라가 만연하자 방역대를 조직해 무료 주사를 실시했고, 몰핀 중독자 수십 명을 요양 치료하도록 도왔으며, 의약품을 휴대해 무료 접종을 시행하는 등 방역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1920년 청년회는 광주노동공제회와 함께 관내 7개 면(광주군, 본촌면, 극락면, 서방면, 석곡면, 효천면, 지한면)에 강연대를 파견해 소작인회 취지서를 배부하고 강연을 통해 관내 15개 면 전체에 소작인회 조직을 유도, 악덕 지주에 맞선 소작쟁의를 전개

2) 『대한협회회보 제9호』, 1908년 12월 25일.

3) 조광철, 「누가 왜 지었나? 100년 전 사립측량학교」, 드림투데이, 2023.7.31.

4) 『동아일보』, 1920.7.8.

하였다. 1921년 4월 30일 총회를 열어 사업을 점검·추진했다.⁵⁾

1921년에는 경성과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순회 강연단을 결성해 여름 휴가 기간 호남지역 신문화 건설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고,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을 초청해 광주 오웬각에서 공연을 여는 등 외국의 흐름을 수용하려는 지원 활동을 펼쳤다.⁶⁾ 한편 간부 이기호의 사임 파동과 조선공산당 간부로 활동한 강석봉의 급부상은 청년회의 정치 성향 변화와 지도부 교체로 이어져, 1920년대 중반에는 초기 간부 18명 중 6명만 남는 등 지도부가 전면 교체되었다.

교육활동의 제도적 확산을 위해 1921년 '조선교육개선회'를 조직해 보통학교를 각 면에 1개교씩, 고등학교와 사범학교를 각 도에 1개교 이상 설립할 것, 보통학교 교육 과정을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할 것,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 교육비 확충, 서당 개량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1924년 11월에는 광주교육협회 창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비 곤란으로 취학하지 못한 남녀 아동에게 학용품을 공급하고 조선어·산술 등을 가르쳤다. 부녀자 부업 장려를 위해 자수과를 설치하는 등 교육 보급에 힘썼다.

유학생을 동원해 시내 3곳에 여름 아동학교를 설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광주 경찰은 유학생들의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하기도 했다. 1926년에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 기성위원으로 활동해 여성 교육 강화에 앞장섰다. 1927년에는 농촌 계발과 문맹 퇴치를 위해 '조선농인사'를 설립하는 데 발기인 및 이사로 참여했고, 1928년에는 광주사립보통학교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일제의 근대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지역의 교육 수요를 감당하고자 광주사립보통학교를 설립·운영했으나, 1928년경 심각한 경영난으로 학생·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자 1929년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당시 4년제였던 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고 교사를 증축해 학교 규모를 확장하였다.

4) 1920년대 소작인 단체 조직과 농민 투쟁

전남 광주 지역에서 맨 먼저 조직된 농민 단체는 조선소작인상조회 전남지회였다. 이 단체는 1921년 8월 친일 귀족 송병준 등이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분배 공평과 소작인의 생활 개선을 명분으로 조직했다. 이에 따라 1922년 3월 18일 전남지회가 창립되었다.⁷⁾ 이후 1922년 8월까지 영광·함평·나주·장성·구례 등에 지회가 설치되었으나, 임월진 다수가 대지주나 상공인이어서 소작인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5) 『매일신보』, 1921.5.4.

6) 『동아일보』, 1921.8.9.

7) 『매일신보』, 1922.3.25.

전남지회의 구체적 활동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부회장 정인준, 광주청년회 초대 회장 최종섭, 서기 겸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의사(평의원) 전순래, 조선노동공제회 김성대 등의 면면으로 보아,⁸⁾ 지주·중소 상공인의 영향 아래 소작농을 동원해 지주의 기득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작농의 경제상태 개선을 도모한 개량적 성격을 띠었다. 계몽을 견지하며 지주와 소작농의 각성과 협조적 관계를 강조했고, 상부상조와 지식 계발, 지주의 양보를 통한 생활 향상을 지향했다.

1922년 12월 20일 광주군 송정면 송정리(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광산 소작인조합이 창립되었다. 조선소작인상조회 전남지회와 마찬가지로 유력자의 지도 아래 조직되었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작농민이 많았다. 이 조합은 1923년 3월 남선농민연맹회에 가맹했는데, 이는 순천·여수·광양 농민의 치열한 투쟁 성과 위에 조직되어 소작료 4할, 지세·공과의 지주 부담 등 요구를 관철하고자 한 단체였다. 즉, 광산소작인조합의 활동은 지주의 양보와 협조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광주노동공제회는 1920년 8월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로 출발했으나, 1922년 11월 '광주노동공제회'로 개칭하고 독자 조직으로 재출발했다. 이들은 소작 문제는 소작인의 철저한 자각과 공고한 단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단체 결성을 통한 단결을 촉구했다.

1923년 3월 4일 광주청년회와 함께 광주군 본촌면·극락면·서방면·우치면·석곡면·효천면·지한면 등 7개 면에 강연대를 파견하여 소작인회 취지서를 배부하고 강연을 실시했다. 광주노동공제회의 선전 활동으로 1923년 3월 14일 광주면 소작인회가 최초로 출현한 이래, 4월까지 군내 15개 면 전체에서 소작인회가 조직되어 농민 투쟁이 전개되었다.

광주소작인연합회는 1923년 4월 29일 결성된 15개 면 소작인회의 연합기관으로, 소작권의 안정과 소작료 인하를 위해 활동하여 한 달 만에 300여 소작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주들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이들은 빼앗긴 소작권을 되찾는 활동과 함께, 보통의 작황을 보이는 곳 1평(약 3.3㎡)을 베어 정확한 생산량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전체 수확량을 계량하는 '평예(坪刈)'를 실시했다. 소작료 산정과 납부 방식에 관한 구체안을 마련해 지주를 굴복시켰다. 손해를 입은 지주들은 소작농 분열을 꾀했고, 지주와 일제 행정당국은 소작인회 간부를 체포했다. 특히 우치면·석곡면·하남면(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의 소작인회는 가장 맹렬하게 지주와 투쟁했다.

각 면 소작인회는 회장·부회장을 두고, 총무부·서무부·재무부·업무부·조사부·교무부·

8) 『매일신보』, 1922.3.25.

구호부 등 7개 부서를 갖추어 각 부서에 간부 1인을 배치했다. 1923년 3월 4일 광주 노동공제회와 광주청년회가 각 면 소작인회 결성을 위해 만든 강연대의 취지서에는 지주에 대한 7가지 요구조건이 담겼다. 즉, 무고한 소작권 이동 방지, 소작료 4할 이내, 지세와 공과의 지주 부담, 두량(斗量)은 평목(平木) 사용, 소작료 운반은 1리 이내, 마름의 중간소작 폐지, 1원 이상의 수리시설 수축비용은 지주 부담 등이다. 이는 소작농의 단결과 권익 보장을 위한 조직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1923년 3월 최종섭·최영균 등의 발기로 수백 명의 회원을 두고 광주면 소작인회가 창립되었다. 1923년 4월 29일에는 각 면 소작인회의 연합기관인 광주소작인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1924년 10월 이래 각 면 소작인회는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개편하고, 각 면 소작인회와 연합회가 연대하여 소작농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최초 설립 당시 회장·부회장·서무·재무·업무 담당자의 상세 정보는 부족하다. 다만 총무 최당식은 운수업, 교무 문태곤은 상업에 종사했고, 두 사람 모두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청년회에서 활동했다. 구호 담당 최영운 역시 광주청년회에서 활동했다. 소작인회는 지주계급에 맞서 소작료를 받 3할, 논 4할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1923년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광주면 소작인회 간부는 회장 최종섭, 부회장 최성언, 총무 최영균으로 구성되었다.⁹⁾

최종섭은 광주청년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1925년에는 광주노동공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최영균은 3·1운동 참가자로 광주노동공제회와 광주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했다. 광주 15개 면 소작인들이 연합해 결성한 광주소작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는 지주에 대한 8개 조의 요구조건 실행을 결의했다.¹⁰⁾

첫째, 일반이 공인할 만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소작권 이전을 금지한다. 둘째, 소작료는 4할 이내로 한다. 셋째, 소작료 분배 방법은 평예로 한다. 넷째, 소작료 운반은 1리 이내로 한다. 다섯째, 두량은 반드시 평목을 사용한다. 여섯째, 제언(제방)·방축 수리비가 1원 이상이면 지주가 부담한다. 일곱째, 마름의 중간 소작을 폐지한다. 여덟째, 지주가 소작인에게서 수취한 지세 및 공과금은 소작인에게 환부한다.

연합회는 각 면 소작인회 대표와 광주노동공제회 간부 등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했으며, 1924년 5월 20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각 부서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집단지도 체제 아래 부당한 소작권 회수 저지, 8개 조항 실현, 소작인 권익 옹호 운동을 이끌었다.¹¹⁾

9) 『동아일보』, 1923.11.15

10) 『조선일보』, 1923.3.9.

11) 최소연, 『농민단체』 요약정리. GC6000723 참조.

3. 신간회운동 참여와 곡절

1927년 2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일제하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인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를 결성하였다.¹²⁾

이는 국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구체적 좌우 합작 성격을 띠었다. 1920~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흐름으로 전개되었고, 이념·방법·주도 세력에 따라 분화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가 협동전선을 형성한 것이 신간회였다. 신간회는 1927년 2월부터 1931년 5월까지 존속했고, 서울 본부와 전국 149개 지회를 두었으며, 회원 수는 4만 명에 이르는 최대 반일 사회운동단체였다.¹³⁾

신간회는 민족적·정치적·경제적 예측의 굴레를 벗고 타협주의를 배격한다는 점을 천명했으며,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쟁취, 청소년·부인 형평 운동 지원을 투쟁 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파벌·족보주의 배격,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기타 이민 강력 반대, 재만(在滿) 동포 구제를 역설하였다. 근검절약과 민족혼 회복을 통해 우리의 얼이 건재함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민족의 생존 길임을 밝혔다.

광주학생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탄압에 항의했으나, 일제의 반응이 냉담하자 이를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시키고자 서울에서 광주실정 보고 민중대회를 열려 했으나, 일제는 간부 등 84명을 연행·구속했다. 그러나 창립 당시부터 좌·우익 간 대립이 계속되던 신간회는 1931년 5월 16일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해소대회에서 해산을 결의,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신간회 광주지회는 1927년 10월 29일 설립되었다.¹⁴⁾ 최종섭은 설립 당시부터 간사로 활동했고,¹⁵⁾ 1928년 12월 18일 간사회에서 서무부 총무간사로 선임되었다.¹⁶⁾

이날 서무부 총무간사 최종섭, 재정부 총무간사 한용수,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이영수,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장석천,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최춘열, 기금부 부장 정수태 등이 선임되었다. 1928년 12월 15일 흥학관에서 제2회 총회가 개최되는 등 일상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1929년 7월 광주지회는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선출 문제를 두고 본부와 갈등을 빚었다. 1929년 9월 3일 임시대회에서 허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찬성파(김시중 등)와 반대파(정수태·최종섭 등) 사이에 소란이 벌어졌고, 이 태도는 본부를 자극

12)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107쪽.

13)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7, 108쪽.

14) 『매일신보』, 1927.11.2.

15) 『매일신보』, 1927.12.20.

16) 「신간회 광주지회」, 『조선일보』, 1928.12.22.

했다.¹⁷⁾

9월 30일 본부는 광주지회를 1개월 정권(停權)하고, 회장 정수태를 제명했으며, 총무간사 최종섭은 중앙집행위원 면임과 함께 2개월 정권 처분을 내렸다.¹⁸⁾

이에 광주지회는 반발하여 1929년 10월 10일 '해산' 결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나,¹⁹⁾ 지회는 실제로 유지되었고, 중앙본부는 1930년 11월 19일 정권 처분을 해제하였다.

한편 1927년 12월 13일 만주 지역 동포가 중국 관헌의 박해를 받자, 신간회 광주지회는 부회장 정수태 사회로 재만 동포를 위한 시민대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일제의 금지로 무산되었다. 1928년 9월 16일 본부 지휘에 따라 관북지방 수재 의연금 모금을 위해 '피해 동포의 구제를 권함'이라는 문서를 지회원에게 배포했으나, 허가 없는 인쇄를 이유로 배포가 금지되었다. 9월 28일 관북지방에 구제금품을 보내려 했으나 역시 금지당했다. 광주지회는 재난과 박해로 고통받는 동포의 권익 보호와 구제에 힘썼지만, 일제의 감시가 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일어나 관련 학생들이 대거 검거되자, 광주지회는 진상을 본부에 보고했다. 11월 9일 본부는 허헌·김병로·황상규 등을 조사단으로 파견했고, 회원 장석천은 조사단에 만세시위의 전국적 확산을 제안했다. 허헌은 자금 제공을 약속하고 11월 21일 지원했으며, 장석천은 중앙청년동맹원들과 서울 지역 1차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이후 시위 열기는 고조되어 학교 간 연합시위로 발전했다. 이처럼 광주지회는 해산하지 않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배후에서 성원했다.²⁰⁾

광주지회 참여 인사로는 최흥종, 최종섭, 정수태, 이운호, 국채진, 김철, 장순기, 장석천, 김재명, 손석천, 김응규, 한용수, 정해업, 범식두, 최상식, 김태우, 김흥선, 문태곤, 전도, 김용기 등이 있었다.

17) 김철영,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과 신간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9쪽.

18) 「정권과 제명으로, 광주지회처벌」, 『중외일보』, 1929.10.4: 광주지회 1개월 정권, 정수태 제명, 최종섭 중앙위원 면임 및 2개월 정권, 한용수 1개월 정권 9월 3일 임시대회는 불법대회로 인정.

19) 「신간회 광주지회, 해산 결의」, 『조선일보』, 1929.10.15.

20) 신용하, 앞의 글, 132쪽, 다만 광주지회는 본부에 보고하고 1929년 11월 9일 조사단을 맞이하는 데 그쳤고, 그 이상 활동은 어려웠다. 이는 합법단체의 한계와 본부 지휘에 따른 제한적 움직임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김철영, 앞의 글, 10쪽.

4. 해방 후 정치 활동

1) 미군정 지사고문회의 참여

해방은 억압된 정치활동의 족쇄를 풀어 전국에서 정치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광주·전남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발히 활동했으나, 미군정 진주와 함께 인민위원회의가 수립되었고, 미군정은 미군정 이외의 어떠한 정치단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의 건준 조직은 8월 16일부터 등장했다. 8월 17일 조직된 전남도건준은 위원장 최흥종을 중심으로 우익과 좌익(김범수 등)이 연합한 통일전선적 통합조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익의 보수성이 표출되고, 미군 진주에 대한 진보 진영의 적극 대응으로 분열이 시작되어 초기 건준은 개편되었다. 일부 우익이 이탈하자 박준규를 위원장으로 한 2차 조직이 등장했다. 이는 중앙 건준의 간부 구성 변화와 마찬가지로, 후기 조직으로 갈수록 통일전선 성격이 약화되고 좌파 중심 성격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광주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늦은 8월 말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건준위원을 선출하는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건준이 좌우 연합 조직이었다면, 인민위원회는 건준에서 우익이 이탈한 뒤 좌익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민위원회는 조선공산당 등 좌익 정당과 연대했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국농민조합 등 외곽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건준·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 혼란을 막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치안대·보안대를 두어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일본인 잔여 재산의 불법 점거를 막고 이를 관리하여 국가 건설의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전남 인민위원회는 농민조합과 중첩되며 활동했다.

전남의 건준·인민위원회 참여자 상당수는 3·1운동,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1930년대 소작쟁의·농민운동 등 민족해방운동의 주역이었다. 간부들은 대부분 지역 출신으로 지방의 자주적 권력 실체를 형성했다. 참여자 중에는 중졸 이상의 지식인이 많았고, 교육 배경은 그들의 계급적 토대로 지주계급이 다수를 이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전남 각군에 점령군을 파견·주둔시키며 점령정책을 시행하자 마찰이 발생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점령정책에 대립되는 세력으로 간주해 억압·탄압하는 한편, 협조적인 우익세력을 지원하고 조직케 했다. 미군정의 고문회뿐 아니라 독립촉성국민회·한국민주당 등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계열 인사는 건준·인민위원회에서 세력을 확장했고, 민족주의 계열 인사는 미군정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

도지사 고문회는 전남지사 최영욱과 한민당 인사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위원은 최흥종·최종섭·김양수·김시중·장용태·강신태·김종필·여철현·이은상·박준규 등이었고,

1945년 11월 21일 제1차 고문회의에서 최흥종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임무는 '전라남도 내 관직에 대한 군정 추천'이었다. 즉, 일본인 관리 귀국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지사 고문회를 활용한 것이다.

최흥종은 3·1운동 등 광주 지역 항일운동의 주역으로 도지사 최형욱의 형이었다. 최종섭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했고, 최흥종(1881년생)과는 친구이자 친척이었다. 일제강점기 신간회 중앙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시중·김양수는 해방 후 한민당에서 활동했으며, 1945년 9월 6일 한국민주당 발기회에서 각각 조직부·심사부 임원을 맡았다. 장용태는 여수 출신으로 와세다대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호남은행 본점 지배인, 조흥은행 흥남지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해방 후 조흥은행 광주지점장을 지냈다. 여철현은 해방 후 광주지방법원 검사장을, 강신태는 변호사로서 광주변호사회를 새로 조직했고 해방 직후 광주서중 교장으로 재직했다. 박준규는 일제강점기 호남은행 근무·남광광업 이사를 지냈고, 해방 직후 전남도건준 위원장과 인민위원회 전남도위원장을 맡았다. 김종필은 구례의 대지주 출신으로 일본 유학 후 구례중학교를 설립해 교장을 역임하고 구례 건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은상은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와세다대 유학, 1930년대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사를 지냈으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²¹⁾

2) 독립촉성국민회 참여

최종섭은 도지사 고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독립촉성국민회 결성에도 앞장섰다. 그는 한민당보다 이승만의 활동과 미래에 더 큰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일제강점기 신간회 중앙위원을 지냈고, 전국대회 위원장 선거에서 허헌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부인하고 본부 지휘를 거절해 신간회 본부로부터 중앙위원에서 면직되기도 했다. 당시 신간회가 사회주의 세력 주도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전남의 다수 유지가 한민당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그는 이승만을 지지하며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남지부장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럼에도 과도입법의원 선거에서는 한민당 당적으로 출마해 민선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전남 당선자는 최종섭 외에 홍성하(한민당), 천진철(한민당), 고광표(한민당), 이남규(한독당), 황보익(한독당)이었다. 전국적으로는 한민당 14명, 독립촉성회 17명, 한독당 3명, 인민위원회 2명, 무소속 9명 등 총 45명이 선출되었다.²²⁾

21) 임선화, 미군정의 실시와 전라남도 도지사고문회의 조직, 『역사학연구』 2038집, 331-334쪽.

22) 『서울신문』, 1946.11.3.

3) 반민특위에 참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국회는 1948년 10월 11일 각 도별 조사위원을 호선해 보고했으며, 전남에서는 김준연이 선출되었다. 김준연은 일제하 사회주의(ML당) 경향의 활동 이력이 있으나 해방 후 한민당에 가입하여 친일파 척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범위를 최소화하고 처벌을 관대히 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민당의 호남 기반과 그의 정치적 지명도 때문에 반민특위 위원이 될 수 있었다.

반민특위는 조사부 책임자 구성을 진행하여 1948년 12월 22일 각도 책임자를 승인 받았고, 전남에서는 김준연의 추천으로 최종섭이 추천되어 압도적 인준을 받았다.²³⁾ 전남조사부 책임자 최종섭은 주변 추천을 받아 조사관으로 신용근·백재호·이지호를 기용했다. 백재호는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경력이 있고, 신용근은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이었다. 전남조사부 서기로는 홍종휘·김교석·김상필이 기용되었다.

4) 『동광신문』, 1949.2.20

전남지부는 1949년 전남 지역 친일 반민족행위자 색출과 처벌을 담당하는 조사기관으로 출발해, 광주·목포 등지에서 고문치사 등 항일운동 탄압에 관여한 인물을 집중 조사·기소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자로 체포된 인사를 고문치사한 자,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자, 징용사건 등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들이었다. 김문주·김인봉·강제호·윤석원·황원석·양원성 등이 대상이었고, 1949년 3월 22일 조사 대상자 44명 중 21명이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이 중 3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제 부역자 중 거물급은 불구속되었고,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경찰 등을 중점적으로 처벌하고자 했으나 다수 대상자가 한민당에 깊이 관여하거나 미군정에 협력하여 처벌이 쉽지 않았다.

1949년 3월 21일 오전 10시 옛 광주법원청사(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2층 사무실에 많은 기자가 모였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반민특위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가 궁금해할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을 모셨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반민특위 활동 협조를 요청하고, 정병조·성정수 두 사람의 반민족행위 요지를 발표하기도 했다.²⁴⁾

전남 조사부가 반민 피의자로 조사한 대상자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강제호, 고재연, 공인수, 김도식, 김동만, 김동호, 김두환, 김문용, 김봉보, 김상석, 김상형, 김옥현, 김육주, 김의순, 김인봉, 김정택, 김중기, 김철진, 김태섭, 김한승, 김형수, 김희규,

23) 『동광신문』, 1949.1.14.

24) 『호남신문』, 1949.2.20.

문재철, 문종중, 박공근, 박순기, 박희규, 서승렬, 서정록, 서재익, 손경수, 손필호, 신원영, 안연구, 양완승, 오세윤, 오세준, 오영선, 유수광, 윤석원, 윤정현, 이덕임, 이문환, 이세옥, 이영배, 이일선, 이종순, 임석균, 정병철, 정순명, 정영수, 조두선, 조석환, 조태환, 차남진, 최점규, 한태오, 현준호, 황원석 등 59명이었다.²⁵⁾

5. 정치·사회활동 종료와 사회봉사, 그리고 작고

최종섭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독립촉성중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에 헌신하며 대한노동총연맹 전남위원장, 대한농민총연맹 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 수립 후에는 국민회 전남본부 위원장을 맡아 이승만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권력욕은 크지 않았다. 일례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직을 권유했으나 끝내 사양하고 다른 인사를 추천해 이승만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그는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호남신문과 동광신문 사장을 지내며 지방 언론 발전을 이끌었고,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 유치, 전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성대학 기성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의 기틀을 닦았다. 이처럼 노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고 사서삼경, 의학, 예서(隸書)를 읽으며 생활했다. 1969년 2월 7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최종섭은 일생을 자기희생과 침략자에 대한 투쟁,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교육·언론·문화 향상에 바친 철저한 항일 민족주의자였다. 다만 그의 3·1만세운동 참여에 관해서는 공적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장례위원장 오피선,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량 등은 그가 3·1 운동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입증할 공식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광주 3·1운동 당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104명(이중 53명이 학생)의 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없다.

기록이 부족한 이유로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 중심으로 비밀리에 조직되어 전단과 격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절친한 친구 최흥종 목사와 달리 그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 37세였던 그가 출신 학교나 종교적 배경 면에서 주도 세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포된 인사 외에도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만세 시위에 동참했을 개연성은 높다. 가족 증언에 따르면 당시 거주지(광주시 대인동 138번지)에 최흥종 목사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운동을 직접 주도하기보다 시민으로서 참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25) 허중, 반민특위 전라남도 조사부의 조직과 활동, 대구사학 제73집.2003, 252-257에서 재인용

10년 후인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시 그와 함께 활동했던 많은 인사가 관여했지만, 그가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항일 정신은 다른 기록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그는 1927년 신간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했다. 일제와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경제적 해방, 통일을 추구했으며, 기본권 회복, 일제의 탄압과 경제수탈 철폐, 여성 차별 철폐,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 옹호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다수의 연구 논문과 언론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이 회고록에서 그가 상해임시정부에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보냈다고 증언한 부분이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이 증언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3·1운동 참여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가 항일 민족운동에 온몸을 바쳤다는 평가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유족들이 『최종섭의 민족계몽 및 신간회 활동 항일독립운동(2가-11885)』에 대한 진실규명 요청에 대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에서도 최종섭의 민족계몽 및 신간회활동 항일독립운동 사건은 진실로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법」에 따라 국가는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 사실이 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⁶⁾

6. 결론

최종섭의 일생은 자기희생과 침략자에 대한 투쟁, 지역 발전에 바친 철저한 항일 민족주의자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된다. 그의 항일운동은 구한말 계몽운동에서 시작해 1920년대 사회운동과 민족협동전선, 그리고 비밀 자금 지원까지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었다. 최종섭은 나라를 빼앗기던 한말의 격동기에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초기의 은둔 대신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길을 택했다. 일제가 식민 통치 자금으로 사용한 '차관' 1,300만 원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광주에서는 최성기와 최종섭이 '전남국채보상기성회' 간판을 걸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다. 국민 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운동에도 집중했다. 1909년 대한협회 광주지회가 설립되자 실업부장과 사업부장을 맡았다. 1910년에는 대한협회 광주지회 회관에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130여 명의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서, 2025.4.1.

그의 3·1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재판 기록이나 공적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광주 3·1운동으로 체포된 104명의 재판 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없고 언론 보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료는 여러 증언과 정황을 통해 그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된다. 1969년 그의 사회장 장례위원장이었던 오필선(전 대법관)은 치사에서 "선생은 3·1운동을 비롯한 일제에 항거하는 모든 의거에 직접 참여하여 선두에 섰으며, 상해임시정부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당시 3·1운동 참여자들이 다수 생존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공언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가 기록에 남지 않은 이유로, 당시 3·1운동이 천도교·기독교 중심으로 비밀리에 조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당시 37세였던 그가 학생이나 종교 지도부 등 주도 세력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가 직접적 주도보다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만세 시위에 동참했을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3·1운동 이후 최종섭은 합법적 공간에서 청년·교육·농민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했다. 1920년 6월, 청년의 지·덕·체 함양과 풍속 개량을 목표로 광주청년회가 조직되었을 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청년회는 여자 야학을 열어 400여 명에게 한글, 산술 등 실력 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광주청년회는 광주노동공제회와 함께 1923년 광주 관내 15개 면 전체에 소작인회 조직을 유도했다. 최종섭은 1923년 3월 '광주면 소작인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10월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20년대 후반, 그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최대의 반일 사회운동단체 신간회(新幹會)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27년 10월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될 때부터 간사로 활동했으며, 1928년 12월에는 서무부 총무간사로 선임되어 지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 광주지회는 진상을 즉시 중앙본부에 보고했다. 본부에서 파견된 허헌, 김병로 등 중앙 조사단을 맞이했으며, 회원 장석천이 조사단에 전국적 확산을 제안하는 등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배후에서 성원했다.

그의 항일운동은 공개적인 사회운동 외에 비밀스러운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량은 그가 상해임시정부와 밀접히 연락하며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보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자금 지원 사례가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이 증언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해방 후, 그의 항일 정신은 친일파 청산 활동으로 이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그는 국회의 압도적 인준을 받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전남조사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전남조사부를 이끌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를 고문 치사한 자 등 지역의 반민족 행위자 59명을 조사하고 이 중 21명을 체포·기소하는 활동을 주도했다.

이처럼 최종섭이 3·1운동 참여에 대한 공식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한말 계몽운동부터 1920년대 농민운동, 1927년 신간회 활동, 그리고 임시정부 자금 지원 증언, 1949년 대한민국의 국력강화를 위해 개인 자격으로 비행기, 군함 헌납기금을 출연하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항일 민족운동에 온몸을 바쳤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

- 궁금증 모아보기

신 주 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 목

1. 머리말
2. 독립운동과 정광호
 - 1) 3.1운동과 정광호
 - 2) 상해 활동 1
 - 3) 상해 활동 2
3. 한국현대사와 정광호
 - 1) 한국민주당과 정치입문
 - 2) 국회의원 정광호 1
 - 3) 국회의원 정광호 2
4. 맺음말 - 어떻게 기억(해야)할까.

1. 머리말

➤ 기억의 절벽

- 디지털광주문화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공훈전자자료관,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독립운동인명사전
- 화순군의 기억(사진)
➔ 1926년 이후는 침묵

➤ 새로운 모색

- 노성태, <노성태의 남도역사 이야기 -2.8독립선언서 가지고 귀국한 광주부윤 정광호>, <<전남일보>> 2021.07.28. 16:57.



출전 : 노성태

2. 독립운동과 정광호

1) 3.1운동과 정광호

- 2.8독립선언서 국내 반입과 활동
 - 독립선언서 제작에 관여하고, 1월 말 국내 반입
 - ➔ 광주의 재경 유학생과의 개인적 연계
 - ➔ 선언서 작성 그룹의 계획된 반입?
 - ➔ 김철과의 관계는? 33인의 준비와 연관?
- 광주부 3.10운동 합류와 3년형(결석 재판)
 - 광주 3.1운동 주도 그룹과의 연계
 - ➔ 서정희(1876) - 최흥종(1880), 김철(1886) - 김강(1890)
+ 1890년대 중후반생들..... + 김필수 목사
 - ➔ 사람의 계기적 연계성?
 - ➔ 이 과정에서 '신문잡지종람소'라는 저수지의 역할?

2) 상해 활동 1 - 임시정부, 임시의정원과 정광호

- 짧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활동(1920~1921) (사진)
 - 임시의정원
 - ➔ 8회(1921. 2. ~ 5.) ==> 金仁全 羅容均 鄭光好 金澈
 - 임시정부
 - ➔ 교통부 참사
 - ➔ 신한청년당의 핵심 활동가였던 '김철'과의 관계는?
- 고려華東한국유학생연합회(1921.7) 회장
 - 목적 : 友愛篤睦과 知識向上
 - '將來 우리의 唯一 活舞臺인 中國에 多數 留學하시기 懇切히 勸하오며.....'
 - 회원 : 창립 때 약 130명
 - 극동피압박민족대회(모스크바, 1922.1~2)에 김상덕과 참석
 - ➔ 이때의 경험은?

3. 한국현대사와 정광호

1) 한국민주당과 정치입문

- ▶ 해방 직후, 공개 활동 공간에 재등장
 - 한민당 중집위(45.9.22) → 사무국원 - 4개 중 문서
 - 韓國志士迎接委員會(45.10.25)
 - 69인 위원 중 1인(상무위원 별도 15인)
 - 그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해방 전후 생활공간은 서울?
- ▶ 좌우 갈등의 격랑 속으로 들어가다
 - 신탁통치문제와 비상국민회의(46.2.1) 13개 분과 위원회 중
 - 교통위원 : 張建相(責任委員) 孫公璘 金宇鎭 鄭光好 白寬洙 宋必滿 尹錫龍 姜元邦
 - 한민당 중앙상집위원 겸 조직부장(46.10)

2) 국회의원 정광호 1 - 제헌 국회에서의 왕성한 활동력

- ▶ 제헌국회에 들어가다
 - 광주군에서 한민당 소속으로 무투표 당선
 - 국회법 및 국회 규칙 기초 위원. 1/15
 - 1년 : 9개 상임위 중 문교후생위원회 위원 1/20
 - 2년 : 8개 상임위 중 교통체신위원회 위원 1/20
- ▶ 여론이 보여주는 활동력 - '多辯부대'
 - "지주님이 많고 徐禹錫·趙憲泳·李晶來·金俊潤·白寬洙·鄭光好·申性均 등의 제군 모두가 韓民의 주요 인물로서 국회 내에서 다변가의 제1인자인 그들은 오로지 떠들고 오로지 자기만이 옳다고 연단을 독차지하려고 든다"
 - 399일 개회 중 독자적인 발언 통계 : 206회(공동 6위)
 - 3권 분립에 입각한 의회주의자였을까?

3) 국회의원 정광호 2 - 특별한 활동 1

➤ 공무원 임용 무자격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8조 5호

→ '蓄妾한 者' 기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졸지에 이 법을 실시하면 이혼과 가정파탄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법에 제정치 말고 교회·사회·학교 교육·신생활운동에 맡길 것이니 법 위신을 지키기 위하여도 제안자는 취하하기를 요청한다" 반대

➤ 무상교육 - 제헌헌법 제16조

- "第十六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教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教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教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 169명 중 가 87, 부 41.

→ 다수 수정안에 대한 진행 발언 : 시간이 없으니, 원안의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들을 검토하자 제안 -> 부결

3) 국회의원 정광호 2 - 특별한 활동 2

➤ 여수·순천 10·19 사건

→ 국회 시국대책위원회 구성 제안(48.10.30).

8개 상임위에서 22명.

→ 국회 선무반(48.12.15)

전남북 6개반 중 광주 담당(鄭光好 延秉昊). 21일 국회 보고.

→ 국회 시국수습대책연합위원회 연석위원(49.1.27)

반란수습대책위원 : 20인 // 반란수습선무반 : 15인 중 1인.

➤ 반민특위 특별검찰관 보선

→ 국회 제5차 본회의(49.7.8). 61표로 3위 당선.

→ 9.26 반민특위재판부. 박흥식 담당 특별검찰관. 공민권 2년 정치

“담당 鄭光好 검찰관의 논고는 즉 반민자에 대하여 보는 각도가 민족 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사람과 이것을 파괴하려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번 검찰관의 보는 각도는 꽤 편파적이었다.

피고 박흥식은 상업인으로서 총력연맹 이사 등 외 여러 가지 요직을 역임한 것과 신문지상에 게재된 기사 등은 그 당시 피고로서는 불가피의 사실로 일제에 이용당하였던 것이다. 조선비행기회사 설립 등은 지방민에 피해가 없고 오히려 유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애국지사 故 安島山 의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온 것과 해방후 교육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희사하여서 인재를 육성함은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겠다. 피고 박흥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악질적 반민행위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民權 2년의 정지처분을 구형하였다.”

4. 맺음말

어떻게 기억(해야)할까?

- 독립운동을 했다. 이후 긴 공백(드러나지 않음), 그리고 활동 재개는 임시정부측이 아니라 한민당에서 였다.
- 1950년 납북. 그런데 남북에서 기억한다. (사진)
1956년 결성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중앙위원
➔ "남북정권당국과 국회, 모든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애국 인사들은 평화적인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설기관을 수립할 것"
"남북총선거에 따라서 통일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할 것"
➔ 남과 북의 화해와 분단극복을 지향하는 과정에 들어서면 중요한 경험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

☞ << 토론문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에 대한 토론문

김남철(전남교육연구소)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토론문

이향희(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에 대한 토론문

남기현(한국방송대학교)

‘양진여(梁振汝)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그리고 오늘날의 선양 방안

김남철(전남교육연구소)

광주광역시 주최,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의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 재조명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 라는 학술대회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큰 행운이다. 올해는 광주 80주년의 해로서 어둠과 굴곡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남다른 해로 다가왔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름 없는 의병장과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려는 활동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행사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한말의병에서 의병운동, 의병항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광주와 전남은 의병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으로, 남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의병장들의 사생취의 구국충혼 정신이 가득하여 남도인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님의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 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의 제안을 받았다. 사실 양진여 의병장을 알게 된 연유도 발표자의 『양진여·양상기 부자의병장 실기』 라는 책자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양진여 의병장에 이어 양상기 의병장은 부자 의병장으로서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수업을 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알아야 그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도의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진왜란기 임진의병부터 한말의병, 그리고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남도인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지역사 학습과 답사를 다니면서 남도의 새로운 사실과 인물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이번 토론까지 할 수 있는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 원장님의 양진여 의병장 생애와 의병 활동을 꼼꼼하게 읽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양진여 의병장이 다시 확 들어왔다. 양진여·양상기 의병장의 묘소가 집에서 가까운 백마산에 위치하고 있어, 그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고 있다. 다시 한번 양진여·양상기 의병장의 묘소에 둘러보니 다행히 묘소를 잘 정리되어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양진여 의병장의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양진여(1862-1910)는 전라남도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활동한 대표적 남도 의병장으로 평민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지역민을 이끌고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무를 익히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지역 유생과 민중 사이에서 항일 의지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국권 회복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가운데, 양진여는 광산·담양·장성 일대에 격문을 돌리며 의병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 평민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민의 추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병장이 되었던 점은 그의 지도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의 의병 초기 활동은 300여 의병을 모집과 군자금 확보, 친일 관리를 비롯한 친일 세력의 제거가 중심이 되었다. 그는 광산군 일대를 근거지로 삼고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전투를 주도하였다. 같은 해 11월 대치산에서는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지역에서의 의병 항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11월 24일에는 약 300명 규모의 연합 의병부대를 이끌고 추월산으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당시 남도 지역에서 의병 항쟁의 불씨를 지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역민에게 ‘자기 고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공동체적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1909년에 들어서도 양진여 의병장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100명가량의 의병을 거느리고 전해산·강관령 등 인근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장성·담양 일대를 공격했고, 광주를 기습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비록 일본군의 대병력 투입으로 계획은 중단되었으나, 그의 활동은 남도지역 의병전선에서 조직적 연합작전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추월산 전투에서 대패한 양진여는 부대를 부하 박모(朴某)에게 인계한 후 자취를 감춘다. 그의 마지막 은신처는 부인 박순천 여사가 주막을 연 적이 있는 담양군 갑향면 향정(현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마을이었다. 양진여는 이성일의 가옥을 빌려 이름을 박여진으로 바꾸고 피신 중이었는데, 부왜인의 밀고를 받은 광주 토벌대의 가지무라(梶村) 중위는 경찰 정찰대 등 토벌대 40여 명과 함께 8월 25일 오후 9시 30분 광주를 출발, 8월 26일 오전 4시 30분에 도착, 5시경에 양진여를 체포한다. 일제에 체포된 양진여는 일군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는 체포되자 “자기 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욕을 당해 죽는 것이 유감일 뿐”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끝내 그는 1910년 일본 법원의 교수형 판결을 받고 순국하였다. 그의 최후는 의병장의 삶이 단순한 무장투쟁이 아니라, 민중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결단의 역사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은 남도 의병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다는 점은 의병운동이 특정 계층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항일 의지에서 비롯된 민중 기반의 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부대가 전해산·강관령 등과 연합하여 활동한 점은 남도 의병전선의 연대와 조직성이 결코 약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특히 그는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지역민 중심의 자발적 봉기 형식을 구현했으며, 지역사회가 의병 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도 의병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진여 의병장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아들 양상기 의병장의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 양상기(1883~1910) 의병장은 양진여 의병장의 아들이며 광주군 서양면 이동

출신이다. 1905년 진위대에서 병사로 활동하던 중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한국군이 강제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1908년 5월 광주·창평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 독립부대를 창설했으며 의병장이 돼 동북·화순·곡성·담양 등지에서 구국활동을 펼쳤다. 양상기 의병장은 1909년 4월 담양군 정면 덕곡리에서 패전, 체포됐다. 1910년 대구형무소에서 최후를 맞았다. 정부는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렇다면, 양진여·양상기 부자 의병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남도 의병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역사교사 외에는 양진여·양상기 부자 의병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름 없는 빛, 의병장들을 소환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발표문에 나온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운동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

토론을 위해 양진여 의병장을 검색해 보았다. 양진여 의병장은 다른 의병장에 비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들 양상기 의병장과 더불어 부자의병장으로 소개된 자료들이 많고, 특히 양진여 의병장의 호를 따라 ‘서암로’는 도로명으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암로는 2009년 지정된 왕복 8차선의 대로로서, 북구 운암동 동운 고가 북단 교차로와 풍향동 서방 사거리를 잇는 도로 총길이는 3.2km이다. 아들 양상기의 호를 따라 ‘설죽로’와는 신안교에서 만나 광주 2순환 도로의 구간이 된다. 도로 표지판에도 서암로와 설죽로가 표시되어 있으니, 관심있게 보면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도 실린 호남의병의 대구 감옥으로 이송 직전에 찍은 사진으로 알려진 호남의병 뒷줄 세 번째가 바로 양진여 의병장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있는 프로그램에 2000년 5월에 양진여 의병장은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 - 광주 일보 <호남의병 이야기>, 전남일보 <의인 열전>, 무등일보 <남도의병 열전>, 남도일보 <광주전남 독립 현장>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호남의병을 소개하고 있다. 당연히 양진여 의병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남도의병이 소개되고 있지만, 특별히 관심있는 시민 외에는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과 아쉬움으로 양진여 의병장을 비롯한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기 위한 의병들을 선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 양진여 의병장에 초점을 맞추자면, 양진여 의병장의 전문가로서 발표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발표문의 내용의 질문보다 양진여 의병장의 기록을 가장 책자를 발행하고 알려진 입장에서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평전이나 의병장 이야기라는 보조교재 작업을 발표자님이 해주

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백마산 자락에 있는 묘지를 잘 정비하고, 자세한 안내판을 세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묘지 참배를 위해 주차장 마련, 안내 해설자 배치 등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병장 관련 유적지, 또는 전투지 등 안내표지판을 한자어 표현에서 현대어로 수정하는 일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비단 의병 전적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자를 배우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도의병들의 활동을 소개할 때 당시 지명이나 행정 구역이 지금과 많이 달라서 꼭 현재 지역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발표자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현재 남도인물 열전을 소개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양진여 의병장과 양상기 의병장을 생애와 의병 활동을 같이 소개했다면, 부자 의병장으로서 상징성과 오늘날 세대 간 의병정신이 이어지는 의미가 더 강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도의병을 공부하고 정리할 때, 전투지와 전투 인원의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인원 규모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병 인원 에 따라 무기, 전투력, 식량 등의 규모를 헤아릴 수 있고, 그에 따라 전투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발표자는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집단사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도 의병장의 정신을 오늘날 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념·문화·지역발전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역 역사교육 차원에서는 양진여 의병장 비롯한 남도 의병장의 활동지를 중심으로 한 ‘의병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직접 대치산·추월산·담양 무동촌 등 주요 전투지와 거점을 방문하거나 답사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당시 격문을 복원하고 학생들이 직접 읽고 느끼는 수업 활동, 양진여 의병장의 전략과 결단을 주제로 한 역할극·토론 수업을 통해 의병정신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지역사 단원 또는 민주시민교육 단원에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활동을 포함한 보조교재를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큼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광산·담양 일대에 ‘양진여 의병 역사관’ 또는 ‘부자의 병장 기념공간’을 조성하여 자료·유물·사진·전투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청소년·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양진여 의병장을 비롯한 남도 의병장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선양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개설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의 개관은 광주전남을 아

우를 수 있는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의병 역사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남도 의병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양진여 의병장의 의로움(義)과 공동체 연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고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자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의병 정신은 오늘날의 시민에게도 유의미한 가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활동, 사회적 실천 프로그램을 ‘현대적 의병정신’의 관점에서 설계함으로써 과거 의병정신과 오늘의 민주시민의식을 연결하는 교육적 전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섭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토론문

이향희(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

발표문은 1969년 장례 당시의 ‘영웅적 서사’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최종섭을 지역 엘리트 민족주의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입체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국채보상운동-대한협회-광주청년회-소작인 운동-신간회-미군정기 고문회-독립촉성 국민회-반민특위 전남지부로 이어지는 지속적 정치·사회 활동의 연속성을 추적함으로써, “우연한 항일 인물”이 아니라 지역 공공성의 한 축을 담당한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광주청년회, 소작인회, 신간회 광주지회 활동을 통해, 최종섭을 교육·사회사업·농민운동을 매개로 한 ‘실천적 민족주의자’로 위치시키는 점은 지역운동사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논의하고 싶은 쟁점은

1. ‘항일독립운동가’ 서사의 근거 문제입니다.

장례 당시 추도사에서 제기된 3·1운동, 임시정부 연계,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성은 발표문에서도 공적 기록 부재가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결론에서 “철저한 항일 민족주의자의 길”로 규정하는 서술은, (1) 자료 비가시성(記錄 부재), (2) 지역사회 기억과 가족, 지인의 증언, (3) 이후 축적된 민족운동, 반민특위 활동을 근거로 한 정치·도덕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토론에서는 “항일운동가”로의 규정과 “지역 민족주의 엘리트”로의 규정을 어떻게 구분하거나 조정할 것인지, 저자의 기준을 조금 더 명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2. 계급, 이념적 위치에 대한 해석

최종섭은 초기에는 계몽, 자강, 소작인 조직화에 참여하면서도, 지주, 유지층과 긴밀히 연결된 인물이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고문, 한민당, 독촉, 입법의원, 반민특위 책임자라는, 우익·국가주의 진영의 핵심 경로를 밟습니다.

이는 “항일 민족주의”와 동시에 엘리트 네트워크의 재편 속에서 권력과 거리를 조절한 인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토론 지점: 이 연속성을 ‘일관된 민족주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민지기·해방공간의 보수적 지역 엘리트의 자기 갱신 전략으로도 분석할 여지가 있는지, 보다 구조적 맥락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간회 광주지회 갈등과 최종섭 평가

허헌 위원장 선출 문제에서 보이는 갈등, 제명·정권 처분, 이후 복권의 과정은, 최종섭이 단순히 ‘합법적 항일운동가’라기보다, 좌우 연합과 노선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정치 행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은 그를 “항일 민족운동의 상징”으로 미화하기보다, 노선 선택과 전략적 거리 두기의 주체로 분석할 중요한 단서인데, 발표문에서 좀 더 날카롭게 문제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재평가

전남지부 책임자로서의 활동은 분명 중요한 공적 자산이지만, 실제 처벌 성과의 한계(소수 유죄, 유력 인사 비가시성)는 그와 동시대 우익 정치세력, 지역 지배층의 이해관계와의 교차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섭은 “친일 청산의 실천가”이면서도, 동시에 당대 정치 구도의 제약을 공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양면을 함께 제시하면 인물상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5. 최종섭 연구의 의의는, 한 개인의 영웅적 서사 복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역 기반 민족운동의 지속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계보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는 “싸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키운 사람”,
즉 광주 지역 근대 시민사회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자료와 기억의 관계

발표문에서는 장례 당시의 추도사, 비문, 구술증언 등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1969년이라는 시점의 사회적 기억과 지역 담론이 투영된 2차적 서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당시 구술과 비문’을 자료로 사용할 때, 기억의 재구성 문제나 후대의 정치적 의미 부여를 어떻게 검증·보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에 대한 토론문

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신주백 선생님의 발표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정광호라는 인물을 살펴본 글입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그의 생애와 활동을 지역, 민족, 분단의 맥락에서 새롭게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920년대 이후 정광호의 행적이 거의 기록되지 않은 ‘기억의 절벽’을 주제로 제기하고, 지역의 사료와 신문자료,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광호의 생애는 한국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깊게 연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8독립선언, 광주 3·10 만세운동 참여, 상해 임시정부 활동, 해방 후 한민당과 제헌국회에서의 역할, 납북과 이후의 행적까지 이어집니다. 남과 북 양측에서 기억되는 인물로서 정광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정광호라는 인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2. 정광호의 인적 네트워크는?

독립운동과 정광호의 관계 부분을 보면, 정광호가 광주를 기반으로 한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의 재경 유학생들과도 연계하였고, 광주 3.1운동 주도 그룹과도 연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료상의 한계를 제시 해주셨고, 김철과의 관계, 사람의 계기적 연관성, ‘신문잡지종람소’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것은 정광호가 이들과 어떤 성격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유학과 동향, 혹은 정치적 행동을 함께하는 사이, 기독교 등 사회조직과 연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호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상해에서의 활동, 사회주의와의 접촉, 한민당에서의 활동

- ① 정광호는 유호임시대회 집행위원으로 국민대표대회 개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발표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정광호의 입장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광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어떤 입장을 가졌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광호의 발언, 서명, 활동 양상을 통해서 유추해볼 가능성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 ② 발표문을 보면 정광호는 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화동한국학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제문에도 문제를 제기해주셨지만, 사회주의를 접한 정광호가 해방 이후에는 한민

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정광호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식민지와 해방 정국을 경험한 정광호의 정치적 성향, 선택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③ ②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해방 이후 정광호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정광호의 이력을 보면 해방 이후 그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한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배경이 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귀국 후 접촉한 인물들은 누구인지, 정광호가 활동했던 지역 기반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지, 상해에서 활동할 때의 인물들 혹은 조직과 연관되는 것인지 등을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 ④ 국회의원으로 정광호는 어떤 모습을 가진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의 행적을 보면 보수적인 측면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보입니다. 한민당을 대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반민특위에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정광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후 정광호를 어떻게 기억할지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4. 정광호를 어떻게 기억(해야)할까?

결론으로 제시해주신 정광호를 어떻게 기억(해야)할까? 라는 문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정광호가 1950년에 남북이 되었지만, 남북에서 모두 기억을 한다는 사실이 눈에 띄니다. 1989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 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중요하게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념적 대립, 분단의 영향에도 정광호를 남과 북에서 모두 기억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광호의 경험은 화해와 분단극복을 위한 역사인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